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일상 회복' 기대

거리두기 완화 시민들 '기대감' ... 확진자 늘까 우려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고, 식당과 술집, 카페는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난 밤 12시까지 영업해도 된다. 시민들은 2개월간 일상 회복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30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일부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결혼식·장례식 등의 인원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광주·대전·대구·제주 등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이 1단계에 해당된다. 예방접종을 끝냈다면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나온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8년차 직장인 이모씨(33)는 "친구들과 있다가도 밤 9시만 되면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불안했는데 이제 편하게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좋다"며 "당장 2일에 약속이 하나 잡혔

는데 금요일이니 밤 11시 넘어서까지 놀려고 한다. 이제 얼마 만인지..."라고 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코로나 학번' 김모씨(20)도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나 교수님도 제대로 못 만나고, 대학 생활도 즐겨보지 못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2학기부터는 전면 대면수업으로 바뀌어서 진짜 대학생이 되고 싶다"며 대학 생활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젊은층 사이에선 연애를 맘껏 할 수 있게 돼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사원 박모씨(37)는 "연애는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 이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며 "거리두기 완화 등이 이뤄지면서 작년과 올해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란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내년 결혼을 앞둔 한모씨(30)는 "신혼 여행을 정말 제주도도 가야 하는 건가 걱정 있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해외 갈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며 "내년엔 다들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도 될테니 결혼식장에 부르고 싶은 친구들을 다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1월 이후에도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하다.

가장 환영하는 건 자영업자들이다. 택시기사 윤모씨(50)는 "지금은 밤 10시만 되면 교통체증도 심하고 그 뒤론 손님이 없는데, 영업시간이 지하

철 끝길 시간까지 늘게 되면 아무래도 손님이 많아지고 그 전까지도 영업을 된다"며 7월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완화해 코로나19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거리두기 완화를 앞둔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를 더욱 키웠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6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8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467명보다 213명 더 많다. 여기에 해외유입까지 고려하면 30일 0시 기준 확진자는 8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올해 1월 7일 869명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직장인 최모씨(30)는 "사람들의 식이 이제 우리 괜찮다고 생각해서 예상보다 경각심이 확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부 신모씨(59)도 "텔타 변이도 위험하다고 하고, 점종물이 절반을 넘으면 모를까 2차 점종까지 끝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는데 이리다가 확진자가 다시 확 늘까 우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달라고 당부했

대상	1단계 비수도권 지역 주민	2단계 지역 유동 인원 제한	3단계 편의점, 도매점 등	4단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모임	모임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모임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모임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모임 금지
방문	방문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방문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방문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방문 금지
업무	업무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업무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업무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업무 금지
여행	여행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여행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여행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여행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금지
문화	문화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4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가능 - 최대 2명 - 1시간 이내 - 실외	문화 금지
스포츠	스포츠 가능 - 최대 6명 - 1시간 이내 - 실외	스포츠 가능 - 최대 4명 -		

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김 총리와 주례 회동... 7월 초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운영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망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

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태도,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형 자치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는 25일 ‘광주형 자치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가정·학교 폭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여 관장하는 제도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 초기 문제점을 최소화 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좌장을 맡은 이훈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자치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주기 위한 다짐들이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최선우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운영문제 분석을 통해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한국형 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위원은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강조하며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경찰권한의 증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해 도시정책에 부합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조기선 (광주CBS 보도국장), 김계욱 (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양우천 (자치경찰국 정책과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훈일 의원)는 오는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범운영 추진 결과와 7월 본격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윤기자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다

도용회 의원, 코로나19로 납품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 납품시 주정차 관련 고충 해결을 통한 유통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마리를 풀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다!



하고 있는 납품도매업체들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치면서 납품도매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심고 있게 고민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주차관리 담당 부서를 직접 불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의원은 “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간을 두지 않고 있지만, 경찰청과 구·군의 협의 및 협조만 있다면 충분히 납품업체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온실가스배출감축에 대한 기준을 넣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 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 3조에 해당되는 차량이 고시 제4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납품도매업체의 정당한 영업 활동인 납품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주정차 관련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산시가 직접 할 수 없는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절차에서부터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과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까지를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또한, 도 의원은 일반적으로 부산시의 책무만 정할 것이 아니라 납품도매업체와 납품도매업차량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 내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업체간 지역 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배출감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노후된 납품차량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 점검도 요구하였다.

그 외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으로는 납품구역 및 영업시간 내

에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구청장 등의 주정차 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납품이라는 고유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해당 행정처분은 자동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납품도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납품도매업의 조직화 및 협동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금융지원과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지원도 하게 하였다.

도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납품도매업체들의 경쟁력은 부산시 유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납품도매업체들의 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조례제정이 갖는 취지는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남구', '남풍(南風)' 활동 시작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남구', '남풍(南風)' 2개 연구단체가 25일 발대식을 갖고 4개월 간의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단체 '문화남구'는 정연우 의원을 대표로 이정숙, 권은정, 이정현 의원이 참여

해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방향에 대한 연구를 연구단체 '남풍(南風)'은 이화주의원을 대표로 홍대환, 최영희 의원이 참여해 남구 먹거리 및 길터 데마거리 활성화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남경영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우/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삼과 숲 이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물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역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맛

사백년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쁨이 깃들었다.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시마,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생태박물관, 분계수석야생화전시관

서울중구, 서울로사잇길민 '관 상생협약체결



중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로7017과 중립동 만리재로 보행로를 연결하는 서울로사잇길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로7017과 인근 보행로를 연결하는 서울로사잇길(중구 만리재로 197~217) 약 220m의 거리는 보차도 단차를 없애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 거리로 싹 바뀌었다. 거리의 명칭도 사이로 서울로사잇길로 명칭을 따서 서울로사잇길로 정해졌다.

서울로사잇길이 조성된 만리재로 일대는 서울로7017 개통 이후 젊은 감성의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 '만리단길'이라 불릴 정도로 떠오르는 곳이다. 서울역사지 등 주택재개발로 유입된 주민과 서울로7017 방문으로 새롭게 지역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간 해당 상권의 상인들이 옥외영업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보행면적 부족으로 허가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구는 만리재로 청년상인들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외를 선호하는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중립동 일대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11월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사잇길 조성사업으로 기존 3m 보행로가 4.5m까지 확장되는 등 옥외영업여건이 좋아지면서 도로정용허가에 이어 옥외영업까지 허가해 올해 5월부터 시민들이 서울로7017

과 사잇길의 풍광을 즐기며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리조성과 옥외영업 허용으로 완성된 이색적인 풍경을 품은 서울로사잇길이 시민 편의 증대와 주변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의 우수한 성과를 위해 시는 정원·가로시설물 설치 및 상인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구는 지역상권 통합관리·지원조직을 구성, 상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이와 더불어 상인들은 옥외영업에 따른 거리관리, 사회적·경제적 이익 지역사회 환원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삼자간의 약속 이행을 위한 '서울로사잇길 상생협약' 체결식이 지난 25일 만리재로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대행, 서울로 사잇길 김솔빈 상인대표는 민관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 위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내용 이행을 다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서울로공공길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서울로사잇길 탄생을 축하하며 중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성장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의 대표적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울로사잇길 상권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영등포구, '쪽방촌 화재 막는다' 자동화재알림시스템 구축

영등포구가 이달 중 쪽방촌에 자동화재알림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밝혔다.

쪽방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대피가 어렵다. 또한 밀집된 건물과 목조 자체 사용으로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한 여건이다.

이번 자동화재알림시스템 설치 지역은 문래동 및 영등포본동 지역 쪽방촌 117곳이다.

자동화재알림시스템은 스마트 화재감지기 및 전문 관제업체의 24시간 화재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 화재감지기에서 연기 및 열 발생 사실을 감지, 관제센터 및 소방서 등에 즉각 전달하고 출동하도록 한다.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화재 상황을 관제하며 화재 발생 시 소방서 등

과 비상대응을 위한 연락망을 상시 가동 대기 중에 있다.

스마트 화재감지기는 신속한 대처뿐 아니라 쪽방 특성별 감지기의 기능 조절을 통한 오작동 알람을 방지해 쪽방 주민의 피로도를 낮추고 소방서의 불필요한 출동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화재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127개를 설치하며 소방인프라를 한층 강화한다.

소방서·동주민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시장·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구는 향후 인근 주민, 상인 등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인 화재 안전망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쪽방촌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임을 고려해 자동화



재알림시스템 등 사전 대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동작구, 무단투기는 그만! 길거리에 쓰레기통 35개 설치



동작구가 이달까지 체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쓰레기통 18개, 재활용 쓰레기통 17개 등 주요 거리에 쓰레기통 총 35개를 설치한다고 28

일 밝혔다.

현재 구에는 (마을)버스정류장 옆, 가로변, 지하철역 앞 등 161개소에 일반쓰레기통 102개, 재활용 쓰레기통 59개 등 총 161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

기존 재활용 쓰레기통은 재활용품이 한 곳에 모아 버려지도록 설치되어 있어 수작업을 통해 품목별로 분리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 24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노량진역과 사당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학원밀집지역과 상가 지역 지역 2곳에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했다.

새롭게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통은 플라스틱류(파란색), 캔·병류(주황색), 종이류(연보라색) 등 3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으며, 투입구 크기를 품목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해 품목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설치되는 일반 쓰레기통은 500mm×500mm×1,000mm의 크기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돼 강풍과 화재에 잘 견딜 수 있으며, 상단

최만식/기자

서초구, 재심(再審)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아카데미' 개최



개최한다.

서초구와 서초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차이나는 아카데미'는 예술,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강연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한다. 올해 첫 대면 강연은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인 재심(再審)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강연은 '재심사건 속 사람이야기'라는 주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십 년 동안 낙인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문학적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각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대면 강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서초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원TV'에서 강연을 다시 볼 수 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서초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강연이 구민들이 힘든 일상속에서 잠시나마 문화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도봉구, 강원도 홍천군과 우호교류 협정 맞손

서울시 도봉구는 강원도 홍천군과 지난 6월 25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두 도시의 공동번영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홍천군에서 진행된 협정식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허필홍 홍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지역 특산품 교류를 통한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관광교류 촉진 등 실질적 교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두 도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 군민의 날 상호 초청 및 방문 지역 주요축제 방문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및 물자지원 등 인적 물적 지원 협조 농촌(문화)체험단 교류 문화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실무 협력들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봉구는 우호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구 대표산업인 양말산업을 소개하고 양말.손수건 세트를 선물

하는 한편, 홍천군은 홍천의 자랑이자 군의 상징 마크이기도 한 무궁화 묘목을 전달해 우호교류 협정의 의미를 더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홍천군과 도봉구의 서로 다른 도시 특성을 활용하여 상호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양 도시가 서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로써 도봉구는 현재 국내로는 2012년 전라북도 부안군, 2017년 경기도 양주시, 2019년 강원도 원주시, 2021년 강원도 홍천군과 우호교류를 맺었으며, 국외로는 1996년 중국 북경시 창평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최광수/기자



송파구, 노사민정 협력 모범사례 만든다! 협의회 발족



송파구는 지난 25일 노사민정협의회의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발굴하고 심의·자문하는 협의체이다.

현재 송파구에는 4만 8,000여 개의 사업체에 34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고용관계 규모다.

이에 구는 노사관계를 호혜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비롯하여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송파구의원, 민간 전문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구는 6월 25일 17시 구청에서 위촉식을 갖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요성을 다시 한 번 공유 한 후,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지역 일자리 대책과 노사민정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앞으로 구는 협의회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협의·심의하며 관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생과 협력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송파만의 특색과 장점을 잘 살린 고용노동정책을 발굴하여 노사민정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나아가 풍요롭고 활기찬 도시 송파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울 서초구와 서초문화원은 오는 6월 29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서초문화원의 차이나는 아카데미'를

서울시,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한강하저 터널 구간 관통

강동구 암사동~구리시 토평동 1,280m, 서울시 도시철도 네 번째 한강하저 통과

서울시는 서울 암사동 암사역에서 별내역(경춘선)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 구간 중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토평동 구간 한강하저를 통과하는 1,280m 터널을 6월 28일 15시 관통한다고 밝혔다.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서울시 구간 도시철도는 ①도시철도 5호선 광나루역~천호역, ②마포역~여의나루역, ③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서울숲역에 이어 ④도시철도 8호선 연장구간이 네 번째다.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 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강동구 암사동)을 시작으로 한강 하부를 통과하여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읍까지 12.906km에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 등 환승정거장 2개소를 포함한 정거장 6개소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1조 3,403억 원이다.

전체 6공구 중 암사동과 한강 하부를 지하로 통과해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1~2공구(3.72km)는 서울시가 맡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214억 원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별내선 한강하저터널은 상·하행 분리터널로 지난 2019.12월부터 구리시 토평동에서 쉴드TBM 터널공

법으로 터널 굴착공사가 착수되어 9개월 만인 지난 2020.8월 하행선(강동구 암사동 방향)이 관통되었다. 또, 장비해체·이동 및 보수 후 2020.12월부터 구리시 토평동에서 상행선(강동구 암사동 방향) 굴착공사가 시작되어 7개월 만인 2021.6월 관통한다.

한강하저 구간은 지리적인 특성상 지반에 질리, 단층 파쇄대 등으로 터널에 큰 수압이 작용할 수 있는 어려운 구간이나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당초 계획보다 약 3.5개월 단축되어 상·하행선이 관통된다.

쉴드TBM 터널공법(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은 원통형 커터 날

을 회전시켜 암반을 잘게 부수 수평으로 굴진한 후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세그먼트)을 조립하여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직경 7.66m, 길이 10.7m, 무게 392톤의 초대형 쉴드TBM 장비가 사용되었다.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양주시 별내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이동 시간이 27분으로 기존 도시철도 노선 이용시 보다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라며, "남양주시 별내와 구리시를 강동구 암사동과 바로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평구, 서울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민 불편 줄인다

부평구가 서울민원에 접수된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한다.

구는 지난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6만7천856건의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해안'과 인텔리 클라우드 GIS 등을 이용해 민원 현안 통계 및 세부내역 분석, 월별·요일별 발생 추이, 지역별 공간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새올담당민원은 2019년 4만5천826건 대비 48% 증가했으며, 인구대비 평균 민원 발생률은 13.7%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민원건수가 5만7천91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온라인(새올전자민원창구)을 통한 민원건수는 1만765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민원 접수 건수가 50% 가까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등으로 간편한 모바일(앱)을 통해 주민불편 및 위반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별 민원 분석 결과 월별로는 10월이,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민원이 가장 집중됐다. 민원처리는 불법주정차 담당부서인 주차지도과가 3만5천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장애인, 교통행정과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민원증가 비율이 높은 부서는 도시개발과, 도로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시개발과의 경우 민원이 전년대비 240%로 늘어



났는데, 이는 산곡4구역 재개발 민원이 집중된 결과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민원 키워드 빈도가 높을수록 글씨가 크게 표현)을 이용한 키워드 분석결과로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 '도로보수 및 무단점유', '재개발', '불법쓰레기' 등이 나타났으며, '불법주정차' 관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등이 연관 키워드로 분석됐다.

주요 민원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지역과 부개3동 아파트단지 주변에 집중됐다.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는 동암역광장, 부평역 광장, 굴포천역 상업지역에 몰렸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방치 민원은 부평역광장과 동암역입구삼거리, 음식물쓰레기 민원은 굴다리오거리

주변이 신고 빈도가 높았다.

이 외에 불법 현수막 신고는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효실천거리 입구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마스크 관련 민원 신고는 부평문화의 거리와 굴포천역 상업지역 주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데이터는 향후 인력 배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청소행정 등 각종 정책 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부평구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정장은 "이번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반복민원을 예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부평e카드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 소비 현황을 파악,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인천시 중구, 신규 '청년상인' 지원 상인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신호청년몰 눈꽃마을·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인천 중구는 6월 24일 신규 청년상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상인지원심의위원회 개최했다.

윤현모 부구청장이 주재한 상인지원심의위원회는 신호청년몰 눈꽃마을 신

구 입점 선정 청년상인 선정 및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의위원회에서 인천 중구 눈꽃마을 신호청년몰 입주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상인들로부터 사업할 아이템과 사업 경험, 마케팅 방법과 O2O-

line의 고객 확보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운영 방법에 대한 토론과 심의, 입주 예정 청년상인과 지역사회의 협업 방법 등의 논의를 통해 신규 입점 청년상인들이 지역사회의 활력소 역할이 되어주기를 희망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과 신호청년몰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규입점 청년상인들을 계기로 청년상인 입점 비율이 총 21개 점포 중 15개 점포가 입점해 청년몰 입점률이 70%를 넘어섰다.

중구는 의류·잡화 커스텀을 주력으로 하는 「판도라의 박스」, 전문음식인강정의 부드러움을 강점으로 하는 「호랑이 강정」, 푸드트럭 경력으로 맛과 가격이 착한 니폴리 피자 「더그스 피자」의 활력있는 신규 청년상인 유입에 따라 신호청년몰 눈꽃마을과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천중구청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상인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청년상인의 선정·평가 및 상인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상인들에게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컨설턴트)의 지속적인 창업컨설팅과 성장컨설팅을 통해 높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전문적인 사업 노하우를 전달해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나아가 주변 전통시장과 상점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소래포구 공용 소쿠리 사용 캠페인 나서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일대 고질적 문제 해결과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섰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25일 소래포구에서 상인대표, 소래어촌계 관계자들과 '공용 소쿠리 사용' 동참 캠페인을 펼쳤다.

이 구정장은 상인들이 공용 소쿠리를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래포구 공용' 표지가 붙은 소쿠리 사용 상점을 이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남동구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재래시장 상인대표, 소래어촌계 등이 공용 소쿠리(300g)사용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이전에는 바가지를 이용한 속칭 '물치기',

'저울치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상인들의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는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에 하락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결국 소래포구 일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구와 소래포구 일대 상인단체 등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해 300g의 공용 소쿠리를 통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강호 구정장은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바가지 상술을 상인들 스스로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적·내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소래포구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인천 동구, '초등 창의논리 여름 영재캠프' 성공적 수료

인천 동구가 지난 26일부터 2일간 인천재능대와 함께 관·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초등 창의논리 여름 영재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구청이 후원하고 인천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주관한 '초등 창의논리 여름 영재캠프'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관내 8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160명(토요일 80명, 일요일 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다양한 빛의 종류와 쓰임을 알고 빛과 그림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빛의 놀이,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픽셀 그림을 그려보는 픽셀 아트 등 창의적, 수학적, 과학적,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능대의 우수한 직업교육 시스템 중 일부를 체

험하는, 베이커리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을 위해 방역관련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소 배치 및 프로그램 구성과 유증상자 참여 제한, 발열검사 및 손소독 실시, 방문기록 작성, 교육장소 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마지막까지 안전한 교실을 만들었다.

하인환 구정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능대의 인재양성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배움이 즐겁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우주/기자



성북구, 2021 '동북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 개최

서울 성북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동북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을 개최했다.

24일 아라리시네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20개 동주민센터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하였다. 행사는 동북지대학 추진 경과, 협약식, 주민의 교육을 컨설팅 해줄 복지관 전문위원 위촉식, 내빈 인사말씀, 미디어를 통한 인권 교육 순으로 이어졌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청-주민-주민센터-복지기관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주민 주도성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북지대학은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복지 의제 발굴에서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주민-관-복지기관이 손잡고 주민의 역할을 키우고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성북구는 '2018년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 돼 2개 동(월곡1동, 돈암1동)이 2019년까지 2년간 진행했다. 2020년에는 3개동(돈암1동, 보문동, 정릉3동)이 선정되어 진행했으며, 올해 20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동북지대학은 지역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현재 복지 관련 활동



을 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조직화, 인권, 지역복지, 복지혜택 발굴 연습, 발굴한 복지 의제로 동북지계획을 세워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20개 전 동으로 동북지대학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등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성북은 주민이 주민을 돕고 돌봄으로써 위기에 강한 성북 복지공동체를 경험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콘텐츠를 더욱 많은 주민이 배우고 누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성원/기자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내달 1일 개장

강화도의 대표 여름 휴양지인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이 다음달 1일 일제히 개장한다.

강화군은 내달 해변의 개장을 앞두고 방역에 중점을 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방문객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해변관리상황반을 상시운영해 방역 및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피서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안심풀을 도입해 출입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해변의 차양시설 현장배정제를 운영해 설치 구간(2m 이상)이 적절하게 지장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막·민머루해변은 배사장과 울창

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밀물 시에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썰물 시에는 해변에서 직선 4km까지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갯벌에서 검은 개흙을 뒤집어쓰고 거머가는 칠게, 가무락, 썬무리고동, 갯지렁이를 관찰할 수 있다. 서해의 낙조도 환상적이어서 매년 여름철에만 10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하는 수도권 근교의 대표 해변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협의를 통해 가장 준비를 끝냈다"며 "쾌적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피서지에서도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의정부시 민선 7기 3주년 성과 “시민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의정부시 만들기 큰 성과 거뒀”

의정부시는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실현해 잘사는 의정부, 8·3·5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민선 7기 3주년 성과는 미군공여지 반환 촉구 결의대회, G&B 프로젝트 추진, 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 등 46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는 2019년 12월 11일 주한 미군기지반환 확정발표에 의정부시가 제의된 사실에 두 차례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에 강력 항의했으며 2020년 1월 2일 미반환 미군기지 CRC 앞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시민 300여 명이 모여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켓시위로 정부에 미군부대 조기반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후 시민들과 공직자, 시·도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2020년 12월 미반환 3곳 중 1곳인 캠프 잭슨이 반환 결정되었다.

의정부시가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 위해 추진한 G&B 프로젝트는 양적 성장과 개발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도하는 선진국형 프로젝트다. 시는 185개 사업에 약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푸름(Green)과 아름다움(Beauty)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의정부시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올해 G&B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녹색환경 조성, 아름다움을 넘어 안전까지 생각하는 G&B, 누구나 누릴 수 있는 G&B환경 구축, 다시 찾고 싶은 힘이 있는 관광서로 탈바꿈으로 녹색도시 G&B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의정부시는 공교육 운영의 다양화 및 특성화로 인재를 육성하고 배움자체가 즐거운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으



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2021년부터는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Ⅲ를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 주체들과 연결해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에서 학교수업+돌봄+평생교육으로 확장하는 지역 교육력제고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교육의 혁신과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학교 내 교육 인프라 지원과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착을 위해 사업 주체를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등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지역의 협업을 새로운 형태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9천300여 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

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환경개선, 생활방역지원, 공공업무 긴급지원, 청년 지원 사업, G&B사업 등 6개 분야 250여 개 사업으로 구성된 뉴딜사업은 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해 2020년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일자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옛 기무사 터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은 2020년 9월 경기도-의정부시-한국기원이 상호협약을 맺고 한국기원 및 산하기관의 의정부시 이전과 국내 바둑프로리그 상시운영, 대규모 아마추어 바둑대회 및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둑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1만㎡ 규모로 한국기원 사무국과 바둑역사전시관, 오픈대국장, 온라인대국장 등 각종 대국시설 및 방송시설, 바둑국가대표실 등 전문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기원의 이전과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으로 의정부시 마인드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해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의정부시 중심으로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의정부역 앞 근린공원 부지에 코로나19 접종센터를 신속히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에서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빠른 접점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로 신속했으며 안전한 백신관리를 위해 백신보관 조처는 냉장과 비상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UPS 설치와 별도로 비상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철저하게 백신을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산하연구기관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27일 제3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유치에 성공해 경기북부 행정중심 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고 앞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주요 정책에 관한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부원장 1실 2본부 5연구실 2센터 7부,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근무인원은 약 200여 명이다.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에 따라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세미나, 학술행사 등 연구부대사업 개최로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선 7기 3년 동안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선 7기 남은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의정부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잘사는 의정부시를 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가짜석유 제조에 탈세까지...’ 46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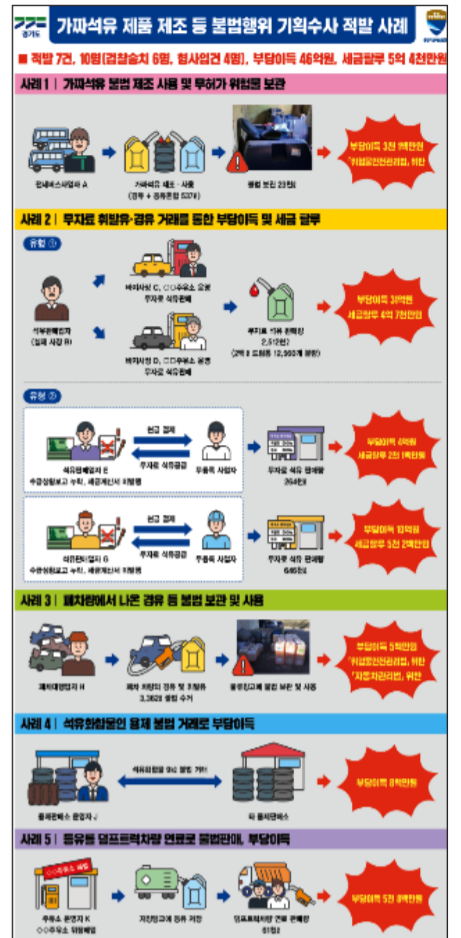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200리터 드림통 1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우·취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디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천리터, 3천1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덩미를 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천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경기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영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환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의 유류



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대출을 올리고 7천3백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천3백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리터 드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피리를 잡혔다. 이밖에도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J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디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1천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경찰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인천 남동구, 공공시설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홍보 캠페인 병행



인천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 ‘몰래카메라’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구 본청, 보건소, 평생학습관, 의회, 구청별관 내 공중화장실 25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 인력 4명이 렌즈·전파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실시한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현장 점검에 이어 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공유행위,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다불어 구는 올해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3단계)을 연계한 상시 점검반을 재구성하고 홍보 캠페인 강화, 다중이용시설 대상 민관 합동 특별점검 등을 계획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 이후에도 몰래카메라 등 고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인식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편의점 비상벨 운영 및 정기 점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마을 조성,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추진 중이다.

최재은/기자

거제시·거제경찰서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실시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지난 25일 거제시 광평동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남부의 협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머플러) 불법 개조와 불법등화장치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이륜차의 수는 약 1만 8천대로, 그 수가 경남도에서도 2번째로 많아 최근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창문을 개방하여 생활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차로 인한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안성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안성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방류하는 폐수와 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하루 폐수 배출량 30톤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성시 환경기술인협회 온라인 키체 등을 통해 홍보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며, 시는 보

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무단배출, 방지사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고, 이밖에도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와 수질오염 행위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단속으로 패적한 안성 만들기 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준근/기자



김해시, 관내 휴양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해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및 야영장 불법 점유 및 산행·산림훼손 관련 불법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집중 단속,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상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제도·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질서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내용은‘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산림 내 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무단벌채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산림보호·단속 강화로 산림 내 법질서를 확립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영기/기자



광명시, 대한민국 대표 중심도시로 도약!

광명동굴 주변 자연·문화·관광 어우러진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광명시는 올해 시 개정 40주년을 맞은 미래를 바꿀 대규모 개발로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1년 인구 15만 서울의 배후도시로 출발한 광명시는 지난 40년 동안 KTX역세권, 광명동굴 등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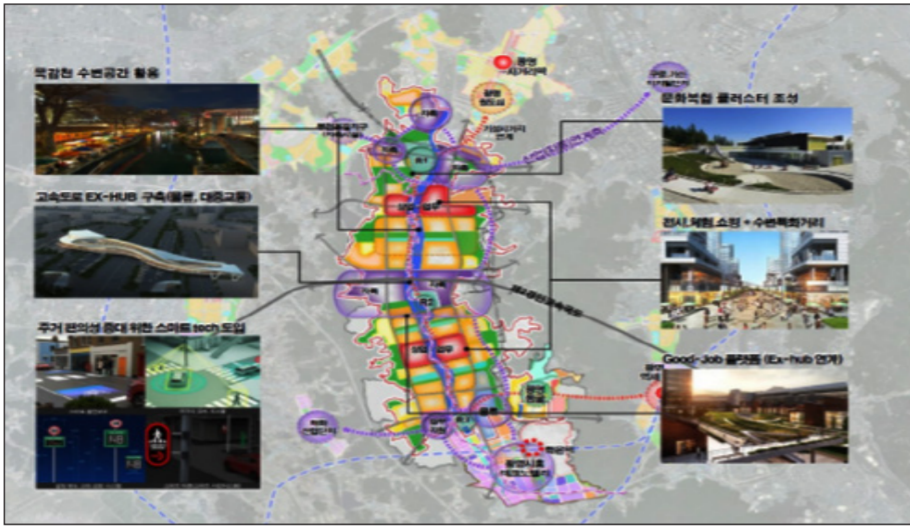
수도권 서남부의 경제지도를 바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광명시·시흥시·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 4000여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 245만㎡(약 74만 평)에 조성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4개 단지 가운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6월 3일 공사를 시작했으며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0년 7월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했으며, 중앙정부, 경기도 및 경기주택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2조257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여의도 1.3배에 달하는 녹지와 전체 면적에서 40% 이상의 자족시설을 확보해 일지리를 갖춘 광명시흥신도시가 들어선다.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서울 도심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과 KTX에 이어 현재 공사 중인 신안선, 건설 계획 중인 월곶관교선, GTX-B,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신도시 내 도시철도까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

또 도시 전체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의료·방역·안전기능과 교육·문화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광명시는 광명시흥신도시를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도시로 개발

하기 위해 ▲일자리 있는 자족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주민 이주와 생활대책 수립 ▲구로차량기지 이전 위치 재검토 ▲광명시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추진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주변(가학동 10번지 일원) 약 56만㎡에 자연·문화·관광·쇼핑이 어우러진 '광명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6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하반기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23년 보상에 착수,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문화시설·상업·주거·기반시설용지를 균형 있게 계획하고, 근린공원에 주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 등 공공 기여 방안도 포함했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를

KTX광명역세권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연계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낙후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약 77만㎡에 5,05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한지방식으로 조성한다.

2015년 11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3차례의 한지계획(안)공람을 실시한 후 올해 3월 한지계획을 수립했다.

시행자인 광명시는 지장물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지장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이주, 철거, 토목공사 등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특별시 방화대교를 잇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명품도시로 거듭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수도권 작은 도시지만 큰 잠재력과 미래가치가 있다"며 "광명시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29만 광명시민과 함께 광명시를 자족도시,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성남시, "다가올 미래 50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

민선7기 3주년, 그간 136개 주요사업 중 75개 사업 완료, 이행률 82%에 달해



성남시는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해 "성남의 태동인 8·10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 50년 되는 올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날 브리핑은 정책기획과장이 '리얼, 성남을 말하다'는 주제로 교통, 안전, 경제, 환경, 문화 등 7가지 분야별 주요 시정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두가 살고 싶은, 사람이 중심인 성남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학교돌봄터 1호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노후 시설 리모델링까지 공공돌봄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는 '돌봄 공백 제로화'를 실현하고 있다.

아동의 존엄한 건강과 생명권을 지켜주고자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지난 5월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일궈낸 바 있다.

특히, 하루 유동인구 250만명에 달하는 사통팔달 도시 성남은 '교통은 복지다'라는 모토 아래 도심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성남형 교통복지체계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인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1호선 역시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힘쓴다.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 S-BRT 도입, 지하철 8호선 연장(모란역~판교역), 위례~삼동선 연장과 맞춤형 준공영제 실시, 누리·반디버스, 성남형 특화버스 등도 운영한다.

준비된, 미래를 선도하는 '게임콘텐츠의 메카, 성남'의 힘찬 발걸음 역

시 계속된다. 지난 4월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에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게임·콘텐츠산업 기반 시설,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비전 16개 특화사업을 펼쳐나간다. 2024년 1월엔 485석 규모로 'e-스포츠전용경기장'도 문을 열고, 2022년에 게임을 활용한 특화 공간으로 꾸며질 '판교 콘텐츠 거리'도 선보인다.

더불어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과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 비용 무상 지원 등 성남형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통해 성남시민 주거의 품격도 드높인다. 지난 2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를 승인했고, 이어 4월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도 승인한 바 있다.

이외에도 ▲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 및 배달앱 연계 서비스 실시, ▲ 백현 MICE 클러스터 조성, ▲ 성남자연순환가에 re100 21곳으로 확대 운영, ▲ 2024년 성남역사박물관 건립, ▲ CCTV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모니터링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등 경제, 문화,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남시는 다가올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하며, 주요 시정을 담대히 추진해 나간다.

끝으로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은 "지난날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히 틀을 깨는, 이미 와 있는 미래의 기회를 잡는 도시로의 위대한 전환과 선도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보는 성남의 그 답 대한 발걸음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한 이래 그간 136개 주요 사업 중 75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이행률도 82%에 달한다.

이성열기자

안양시, 28일 공무원노조해직 공무원 4인 복직 환영식

공무원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안양시공무원에 대한 복직 및 환영식이 28일 안양시청사 현관에서 있었다.

전공노안양시지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환영식은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동료직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직하는 공무원은 손영태(행정 7급), 라일하(세무 7급), 이호성(시설 7급), 이진형(시설 7급) 등 4명이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

복직자 중 한명인 이호성 주무관은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공무원 우리 동료들과 생활한지가 벌써 17년이 됐네요.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노동부분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는 몽클하네요."라며 벽찬 소리를 나타냈다.

해직공무원 복직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금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원종균기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학생들, 하남디지털캠프 시설 투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하남디지털캠프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진로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는 에니고 학생 5명과 진로담당교사 등이 지난 21일 하남디지털캠프 시설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하남벤처센터 3층에 위치한 창업 생태공간인 하남디지털캠프 시설을 시민들이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이날 디지털캠프 지하 1층 3D 프린터실에서 투어를 시작, 각종 3D프린터를 살펴보고 제작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지하 교육실과 화상회의실을 둘러봤으며, 2층에서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크리에이터 사무공간 등을 견학했다.

3층에서는 영상 편집실 방문에 이어 VR(가상현실) 체험이 진행돼, 학생들은 다양한 VR 콘텐츠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합성해 주는 가상 스튜디오 시연에 참여했으며,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에서는 쇼호스트가

태 직접 모바일 홈쇼핑을 진행해보기도 했다.

시설 투어 후 진행된 진로상담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 드림플레이어의 김정주 대표와 하남디지털캠프 소속 크리에이터인 유튜브 CarSceneKorea 김동규 대표가 참석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정주 대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하남디지털캠프에서 1인 기업을 창업한 후, 현재 4명의 직원을 둔 회사 대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와 과정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또, 김동규 대표는 스타트업 대표에서 유튜브로 변신하게 된 일화와 MCN 회사 소속의 장점, 유튜브 활동을 위한 영어의 필요성 등을 알려주는 등 실무에서 우러난 다양한 경험담과 열정을 전했다.

에니고 관계자는 "이번 하남디지털캠프 투어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를 체험하고 관련 분야 선배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어, 현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캠프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정동희기자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7월 1일 ~ 30일 18시까지 30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3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7월 2일생부터 1997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참여자에서 7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분기(20년 4분기 ~ 21년 2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으로 추가지급이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 올해 지급받을 수 3·4분기(최대 50만원)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김남주기자



수원시 팔달구 지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34.5% 연계지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은 지난 5~6월 중 실시한 2021년 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확인 사업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체납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능성이 있는 복지수요자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지동은 2021년 3차 대상자로 중앙과 지자체를 통해 102명이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대상자들을 살펴본 결과, 고용위기,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의 다양한 위기가유가 있었다.

지동 맞춤형복지팀은 대상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생계지원을 안내하였으며, 대상자 102명 중 35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동내역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2명, 긴급지원 3명, 한시생계지원 30명이다. 일부 대상자는 통합사례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시생계지원을 접수하려던 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신청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상당도중 타 지역에서 거주지 없이 차량에서 거주하는 등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병점1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연계하여 바로 긴급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동 담당자는 "보통 3~40명이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이번에는 102명이 통보되어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시생계지원을 신청하도록 일일이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또한 6~7월 중 폭염대비 저소득층 1인가구에 대

한 일제조사를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지동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의정부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식비 할인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을 대상으로 외식비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식비 할인 서비스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시의 백신접종률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참여 외식업소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시 외식비 1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의정부시지부 및 의정부부대찌개명품화협회 등 유관 단체에서도 사업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시에서는 순차적으로 참여 업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외식업소 확인이 가능하다.

장영국 위생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접종률 제고를 위한 시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주시는 유관 단체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백신접종을

제고를 위한 사업 확대 운영 추진에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지원서비스 운영

안산시는 안산시자살예방센터(센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족의 애도과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자살유족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안전도시 선포를 목표로 ▲자살예방 ▲범죄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구축에 전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센터 운영을 통해 ▲자살고위험군 위기사례관리 ▲자살유족지원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자살예방 브랜드 '살구'를 활용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명이 자살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의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살유족은 약 6만9천명에서 많게는 13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자살유족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겪게 되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드러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센터에서는 애도상담, 유족치료비지원,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다양한 유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따뜻한 작별', 유튜브 채널 '애기함' 등 온라인서비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종하 센터장은 "자살유족지원서비스 홍보를 확대해 유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회복과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군포시, 2021년 경기도 '기업 SOS 대상' 노력상 수상

포시가 '2021년 경기도 기업SOS 대상' 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해 기관표창을 받았다.

'기업SOS 대상'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성장결핍률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 등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한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2020년 도내 31개 시·군의 지자체장 관심도,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 개선, 예산지원,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홍보실적 등 총 6개부문 18개 평가지표를 시·군 내 등록기업 수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군포시는 고양, 수원, 이천, 여주, 광명, 하남, 의왕으로 이루어진 C그룹에서 전년도 대비 평가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시·군에게 주는 노력상을 수상했다.

군포시가 지난 1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정기적인 기업간담회를 통한 기업애로 청취,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업성장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개



선, 노후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향상 등 군포시의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협력해 온 관내 기업들과 시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준균기자

양평군 강하면, 주민이 스스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마을복지계획 교육 진행

양평군 강하면에서는 지난 9일,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을복지계획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참여하는 과정을 담은 주민주도의 복지실천 계획이다.

면에서는 지난 4월 기본교육 실시 후, 강하면 주요 기관단체장 9명으로 구성된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했고, 두차례에 걸쳐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5월 중 1차 심화교육을 통해 마을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주민 전체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추진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식물 전달 사업 등의 2가지 의제를 발굴했고, 이

면 2차 심화교육을 통해 2가지 의제에 대한 사업목표, 대상자, 운영주체, 운영방법, 효과, 예산확보 방안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사운 강하면장은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인 만큼 주변 어려운 이웃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우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하면은 오는 7월 3차 심화교육을 통해 마을복지계획을 구체화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성용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칠곡군, '제2연평해전 19주기 추모행사' 개최

중이학편지, 시 낭송, 공연 등 학생들 자발적인 동참 '눈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선수들의 영광은 잘 알고 있었지만 같은 시기 제2연평해전 참수리 357정의 군인 아저씨의 슬픔은 잘 몰랐습니다”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앞두고 6·25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뜨겁게 일고 있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벌어진 전투로 남한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나 승리를 거둔 일과 백전기 칠곡군수의 추도사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및 초·중·고 학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중이학 편지를 읽고 추모시를 쓰는 것은 물론 가요 경연과 토크쇼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추모 행사는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이다 중상을 입었던 이희완 해군 중령의 특별 강연과 백선거 칠곡군수의 추도사로 시작됐다.

이어 배근영(순심여고·3) 학생의 가야금 병창 '사랑가'와 유아진(왜관초·5) 학생의 추모시 '6인의 영웅' 낭송이 이어졌다.

배근영 학생은 “추모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추모 공연에 참가했다”며 “차가운 바다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어 사랑가를 불렀다”고 전했다.

또 왜관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색종이에 편지를 쓴 뒤 종이학으로 접은 종이학편지 650통을 전달했고 성악가 최원철 씨는 비목을 열창했다.

이어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며 희생 장병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또 이희완 중령이 가운데 서고 학생들은 열곡대신 등에 새겨진 희생 장병 6명의 이름을 보이며 “내가 참전용사다” 퍼포먼스는 감동을 자아냈다.

이와 더불어 이윤경 칠곡군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강의 중이 중령의 모습을 그려 전달했고 칠곡영향메모리퀘스트라 어머니회는 행사 참가자를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

이윤경 국장은 “이 중령님의 하얀 정복속의 숨겨진 상처를 우리는 지금껏 보지 못하고 살았다”며 “그림을 그리며 동안 죄송함과 아픔으로 연필을 들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추모 행사가 끝났음에도 노유진(왜관중·3) 학생이 연설 눈물을 흘리자 이 중령은 따뜻하게 위로했다. 노유진 학생은 “지금 제가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은 칠곡군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해군 기념품을 보냈다. 이 중령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긴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숭고한 일에 앞장서 주신 칠곡군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백선거 칠곡군수는 “참수리 357호정 대원들이 보여준 위국헌신의 군인정신이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긴 세월과 함께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산화한 호국용사들의 높은 뜻을 받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주시, 첨단산업 태동하는 영주 '꿈과 희망의 도시' 미래 100년을 열다

민선 7기 투자유치 5,307억원 등 경제분야 두각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장욱현 영주시장이 영주호의 선장이 되어 지역을 이끌어왔다. 장 시장은 특히 민선 6기에 이어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를 지탱하고 키우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무엇보다 청년인구를 늘리기 위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거뒀다.

시는 민선 6기 5,039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7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데 이어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첨단배어링 제조공장 증설 등 5,307억 원의 투자유치와 83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신규타당성 검토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하이테크 배어링산업 기반구축(사업비 264억원), 경량 알루미늄소재기반 융·복합부품 시생산 기반구축(208억원) 등의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으로 영주시가 산업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선 복선전철, KTX-이음 개통

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졌으며,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추진 등 철도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한 정책들도 빈틈없이 추진됐다.

영주형 지역화폐인 영주사랑상품권을 1,04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였으며, 6월 현재 가맹점이 4,286개소에 달하는 등 지역순환 경제를 실현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 영주센터 개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농업은 영주경제의 또 하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시는 한라봉, 레드향 등 아열대과수와 별사과, 플롭코트, 샤인머스켓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경쟁력을 높였다. 언택트 농업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톡,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영주시 농특산물 공식 쇼핑몰인 영주장날이 올해 상반기 매출액 1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200% 이상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농특산물 유통시장 확대와 지역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2020영주풍기인삼축제는 유튜브 등을 통해 850만 명이 시청하며 큰 호응을 얻어 전년도 인삼시장 판매량보다 오히려 20% 이상 증가된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공격적인 수출 마케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정책도 돋보였다.

세계가 주목하는 힐링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한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안반낙도 힐링영주'가 2021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사업비 120억원)되었으며, 웰니스 관광예비 클러스터 선정, '무섬마을 정비사업' 문화재청 승인(사업비 119억원) 등 영주시 관광산업이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프로그램과 인프라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순흥면 일대에 조성중인 선비세상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주시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힘을 모아 준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등 국토교통부 최종승인 완료까지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과 동해선 철도를 연계한 새로운 수송체계를 구축해 물류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힘을 쏟겠다”라며 “특히 지역의 100년 미래를 위해 영주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 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노력도 함께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김기현/기자

상주시, 감 가공제품 개발 위한 연구 협력체 결성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경북농업기술원 감 연구소·식품환경연구센터와 MOU 체결

상주시가 감의 주요 산지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감 가공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25일 경북도농업기술원 감 연구소, 식품환경연구센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 가공제품 개발 연구협력체 결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감의 주요 산지인 상주시의 이점을 활용해 반가공 제품인 크림소스, 분말과우더 등 디저트 개발을 위한 상호 협약으로, 앞으로 베이커리·카페 등의 특색 있는 가공제품 출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 연구소, 식품환경연구센터와 함께 상주의 감 산업 발전과 감 소비 촉진, 실용성을 높인 가공제품 개발에 앞장설 예정이다.

정용화 미래농업과장은 “세 기관이 하나로 뭉쳐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감의 고장인 상주의 가공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결과물을 활용해 상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반식/기자



문경시, 2021년 간편식·웰푸드 박람회 참가



문경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1년 간편식 & 웰푸드 박람회』에 참가해 문경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약 2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전국에서 약 100여개 업체가 참가해 가정식대체 식품(HMR)과 건강식품, 로컬푸드 등을 200여개 부스에 전시·홍보했고 문경시는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된 특별 홍보관을 운영했다.

시는 문경시 농특산물로만 구성된 특별 홍보관에서 가운뎃 상하식품의 오미자를 이용한 절임류와 반찬류, 마성면 알뜨랑농원의 작두콩 두부과자와 두부,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의 오미자 가공품과 전

통식품 등으로 약 1천만원 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해 문경 농특산물의 인기를 실감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외에 『문경사랑 새재장터』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행사와 네이버밴드, 귀농귀촌 및 인구증가시책 등을 적극 홍보해 대구지역 소비자 및 대구시 문경 향우회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함광식 문경시 유통축산과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정성으로 키워낸 농특산물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직거래장터 등 대내외 판촉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청감주 만들기 체험



대구 수성구는 지난 25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청감주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이날 체험은 찹쌀을 찌서 누룩, 물, 막걸리를 넣고 7~12일 동안 발효시켜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다. 청감주는 단양주이지만 이양주처럼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5월 일반막걸리 만들기 체험에 이어, 청감주도 접수 3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전통주 분야에 기술이 있는 전통장인을 발굴해 장인의 경험과 기술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청감주 만들기에 이어 오는 8, 9월에는 석탄주와 탄산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8월에는 ‘삼키기 안타깝다’라는 뜻을 가진 석탄주를 만들어 추석 차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에 참여한 주민은 “판매하는 막걸리와는 맛과 향기가 확연히 달랐고, 나만의 수제막걸리를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마셨다”며, “남은 2번의 수업도 계속 참여해 전통주를 빚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전통주에 대한 주민의 뜨거운 관심을 발판으로 전통주 만들기를 수성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다른 분야의 숨은 전통장인도 발굴해 장인들이 자기 분야에 꿈과 역량을 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경북도, 농지 필지별 환경정보 통합플랫폼으로 한눈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5일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이란 ‘농업환경정보’ 즉, 토양, 병해충, 기상, 수계정보 등 농업환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스마트팜 시대에 발맞추어 농업 분야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토양이나 병해충 발생 등 농업환경에 대

한 정보들은 검색 사이트마다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농업환경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2007년부터 토양정보기반의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작물 재배적지, 기후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토양, 기상, 병해충 등 다양한 농업환경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

정이다.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은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농경지 각각의 필지별 정보를 해당 지번 단 한번의 검색으로 토양의 영양 상태와 병해충 발생상황, 가뭄 및 수자원정보 등 다양한 농업환경정보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정밀하고 폭넓은 농작물의 관리가 가능하며 기상 및 병해충 발생에 대한 재해를 예측·예방할 수 있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연구 사업이나 농가컨설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도 보다 정밀한 농업환경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농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및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승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은 농업환경정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정보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기대를 나타내었고 “철저히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플랫폼이 되고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합의 플랫폼이 되도록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세미콘서트' 개최

부산시는 관광업계와 시민이 함께 하는 국제관광도시 세미콘서트를 6월 29일 부산동 KT&G 상상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이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홍보영상 시사회 및 전략적인 관광도시 브랜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콘서트는 보고회, 강연 등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국제관광도시 홍보영상의 BGM(배경음악)에 참여한 세이수미 밴드의 라이브 공연과 함께 진행해 콘서트 분위기를 자유로운 형식의 행사로 기획하였다.

세미는 세이수미 밴드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온 것이기도 하다. 세이수미는 영국 등 12개국 50개 도시에서 공연하고, Old Town이라는 노래로 엘튼존의 극찬을 받은 해외에서 더 인기 있는 부산 출신 인디 록 밴드로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홍보영상 배경음악 제작에 적극 참여해 주었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향후 4년간

대규모 예산투자가 이뤄지는 국제관광도시 홍보마케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인 강병규 프리젠티 대표의 '국제관광도시 브랜딩 전략'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1차년도(2020년) 사업으로 SNS, 유튜브 등 디지털 마케팅, 비짓부산 운영, 국제관광도시 홍보영상 제작,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등의 사업에 총 20억원(국비 5억원,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해 7월 비짓부산 영어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인플루언서와 부산 랜선여행을 선보였고, 총 10종 12편의 국제관광도시 부산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부산의 사계는 물론 인근지역인 통영, 경주까지 영상에 담아 남부권 연계 관광의 매력을 영상에 담아냈다.

또한, 관광정보 채널을 '비짓부산'으로 일원화하여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고, 5개 언어로 제공하여 외국인 편의성을 확보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역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관광상품 할인 프



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업계와 시민분들께 국제관광도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고,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마케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브랜딩하여 지역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하동군, 남해안해양레저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하동 중평항

하동군, 연말 준공 목표 80억원 투입 어촌뉴딜사업 순항...바다 놀이터로 변신

청정 남해바다의 하동 중평항이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금오산 산악 레저와 연계한 해양레저 중심지로 발돋움

하동군은 낙후된 어촌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평항 어촌뉴딜사업'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중평항 어촌뉴딜사업은 진교면 술상항과 함께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하동군 어촌뉴딜사업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8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평항은 어촌 고유자원인 섬·바다 등 수산자원을 비롯해 배후에 산악레저 중심지로 부상하는 지리산 줄기의 금오산이 자리하고 있어 공모 선정 당시부터 미래 남해안의 레저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곳이다.

군은 중평항 어촌뉴딜사업 목표인 '금오산 산악 레저와 연계한 해양레

저플랫폼 중심지'의 중평항'을 실현하기 위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동사업 5개소와 특화사업 4개소를 추진 중이다.

먼저 공동사업으로 지난해 9월 딩기요트·카누·카약이 접안할 수 있는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현재 어항경관개선, 마르쉐광장 조성, 해안접근로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이용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바다놀이 플랫폼 조성사업과 어촌문화복합센터 조성, 갯벌진입 기반시설, 해와달 낚시공원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준공해 중평항을 바다의 놀이터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또한 군은 중평항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 중인 무인도서 '술섬'과 연계해 해양레저 거점지로 조성하는 한편 금오산의 쉼와이어, 케이볼카, 청소년수련원과 연계를 통해 해양·산악을 아우르는 하동의 레저중심지로 조성한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 어촌뉴딜사업으로 중평항을 방문객이 찾고 싶은 마을주민이 살고 싶은 어촌·어항을 만들고 어촌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혁신어촌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 세계음부즈만협회 정회원 됐다"

시민 권익 기구로 선진화된 운영·조직·활동 등 국제적 인정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가 세계음부즈만협회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세계음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이사회(지난 5월 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세계음부즈만협회(IOI) 회원은 세계음부즈만협회(IOI)의 각종 회의에서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가진 정회원과 그렇지 않은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 및 조례가 마련돼 있고 그간 성과도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번 시민신문고위의 세계음부즈만협회(IOI) 정회원 가입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유무조사위원회, 강원도 사회감등조정위원회에 이어 4번째이다.

차태환 위원장은 "시민신문고위가 지난 3년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신문고위원이 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갖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시민신문고위는 세계음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등의 관련 활동은 물론 세계의 우수한 음부즈만 및 해외 지방자

치단체 회원과 교류를 통해 울산 시민의 권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한 시민신문고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비롯해 시민의 감사청구 및 청렴계약감시 평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민원총합서비스평가에서 2년(2019년~2020년) 연속 시민고충처리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평가단이 시민신문고위를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김기현기자

상주면, 2021년 첫 출생아에게 축하 선물 전달

'황금복돼지'에 복을 담아 백일 아기 축하

남해군 상주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올해 관내에서 첫 출생한 아기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황금복돼지 저금통을 전달했다.

황금복돼지 저금통을 선물 받은 아기는 올해 2월에 출생했고, 상주면 행정복지센터는 이 아이의 '백일'을 기념해 '작은 이벤트'를 펼쳤다.

상주면은 출산 장려와 '다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아기 황금복돼지 저금통 선물하기' 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주면은 여타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생아의 울음 소리를 듣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꾸준히 귀농·귀촌인이 늘

어내고 있고 출생아들도 증가하면서 서서히 활력이 감돌고 있다.

상주면에서는 2019년 2명, 2020년 1명이 출생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들어서는 이날 황금 복돼지를 선물받은 아기를 포함해 3명의 아기가 탄생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2명의 아기가 더 출생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상주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관내 인구가 31명 더 늘어났다.

윤종석 상주면장은 "면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섬·바다, 밤이 아름다운 통영 수도권 홍보마케팅 펼쳐



통영시는 지난 2021.6.24.~2021.6.27.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섬·바다, 그리고 통영"을 주제로 휴가철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통영의 섬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통영시가 유치한 제2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2021. 8. 6.~2021. 8. 8.까지 3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만큼 570개의 섬을 보유한 통영의 섬과 바다를 알리기 위하여 홍보부스 전면에 연대·만지도와 비진도의 사진을 배경으로 모래와 자갈, 해먹, 파라솔 등으로 '섬에서의 피크닉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실제로 통영의 섬에 휴가 온 것 같은 인증샷이 연출되어 큰 인기를 얻었으며, 통영의 섬을 알아보면서 대결하는 섬주사위 이벤트를 진행하여 본격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심여행지로 통영의 섬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디피랑이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및 안심관광지로 선정

되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개장 7개월만에 10만명 돌파 기록을 세운 디피랑의 수도권 홍보를 위해 밤이 아름다운 통영 마케팅을 적극 펼쳤으며,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영 12공방 중 하나인 통영 나전칠기를 활용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체험이벤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통영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통영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 40여 국가, 300여 기관 및 업체 등 400여 부스 사이에서 '최우수 홍보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었다. 통영시 관계자는 "한려수도의 수려한 풍광을 품은 보석같은 570개의 섬을 보유한 통영은 섬과 바다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선정 강소형 잠재 관광지·안심관광지 디피랑 등 차별되고 우수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이므로 통영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한 휴가를 보낼 것을 추천하며" 통영시는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심관광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거창한 준공식보다 주민 목소리 듣겠다"

창원시는 28일 오후 2시20분 진해구 도로확장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 및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허성무 시장은 진해구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대장동 대장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준공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민숙원사항 해소를 위한 최종점검을 했다.

먼저 가주동 주포마을 진입도로 확장의 경우, 사유지의 도로 편입 사용으로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면서도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해 차량 교통이 불가하여 이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로개설 방향을 설정하여 도로폭을 4m→7m로 확장하는 공사를 올해 6월 완료했다.

다음 현장은 대장동 대장마을로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여름철에는 마을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의 차량증가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폭을 6m→15m로 2019년 총 27필지(4,613㎡)에 대해 보상협의 완료하고 오는 7월 준공 예정에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마을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부서에는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진주시, 인구정책 웹툰 공모전 개최

진주시는 결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주시 인구정책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주제로 아이 탄생의 소중함을 담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내용,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내용, 기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 인구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진주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진주시민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미성년부와 성년부 등 2개부로 나눠서 공모를 진행하며,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성년부의 최우수상에 100만원(1명), 우수상 70만원(1명),

장려상 30만원(2명), 미성년부는 최우수상 7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1명), 장려상 20만원(4명)이 진주시 광상품으로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전북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선정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전북도가 3억 원가량의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도내 양돈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8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조달청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혁신제품의 시범 사용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 확산 등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이번에 전북도가 받게 되는 제품은 전주시 소재 ㈜일루베이션에서 만든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이다. 3D 카메라를 활용



한 돼지 체중 측정기로, 기존의 스톨 저울로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CT 장비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이번 조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

정기'를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시범 사용하고, 시범 사용 농가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정부 정책 방향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양돈)'에 대한 이행 농가의 보상 목적으로 시

범 사용 대상 농가 36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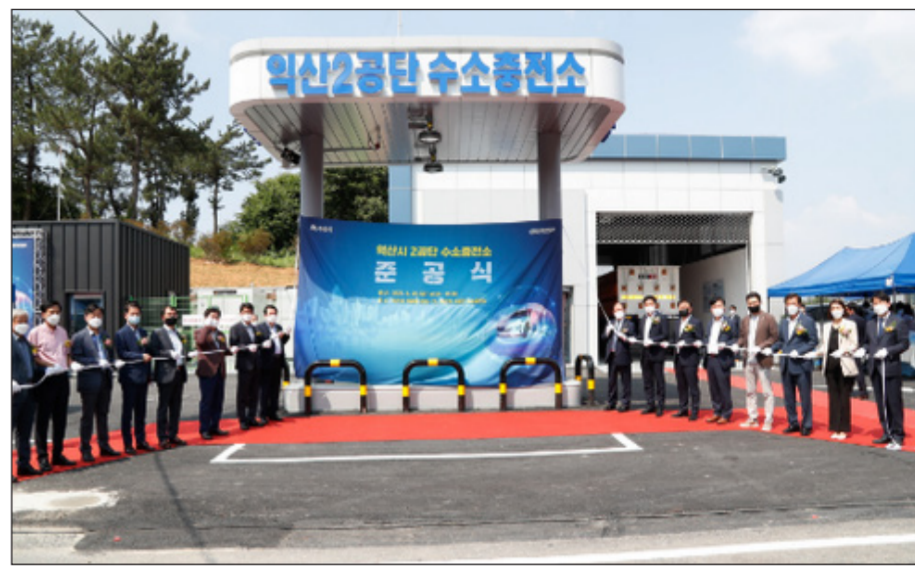
전북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용을 마친 후 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 사용 양돈농가에 소유권을 이전 및 지속적으로 활용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공개하여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등 기업 성장을 돕고 양돈농가에 신기술 축산장비 보급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舉兩得)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전북도내 공공기관 1호 '익산수소충전소' 구축

익산2공단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익산에 도내 공공기관 1호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것이다.

시는 25일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하며 수소에너지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준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준공된 수소충전소는 도내 공공기관 1호 수소충전소로, 석암동 389-75번지 일원에 사업비 총 30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1천995㎡·건 축면적 296㎡ 규모로 구축됐다.

충전시설 250kg/일 용량으로 수소충용차 1일·50대가 충전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상업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충전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충전소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소차 운전자들이 타지역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고충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현재 등록된 수소차량 113대에 이어 올해 127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오는 2023년까지 총 410대를 보급해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내년에는 지역의 수소 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권역에 수소 버스충전소를 추가 설치해 수소 승용차 충전은 물론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순 국장은 "이번 수소충전소 개소를 계기로 익산이 앞으로 수소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라북도 역시 수소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친환경 그린에너지 수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힘써 청정 그린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무안군, 농식품부 주관 2022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30억 선정

무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2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2개 시도의 50개 시군이 신청해, 시도 서류 평가와 농식품부 중앙 평가를 거쳐 2단계 심사로 진행됐다.

군은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대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남도 1위 성적으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축산밀집지역, 악취민원 유발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시설 및 퇴·액비 부숙관리 시설 등을 집중 지

원하는 사업으로서, 악취민원 감소 및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정결히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친환경 축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무안군 축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축산밀집 지역 등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지역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무안군은 올해 4월부터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인근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악취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모계획서를 작성

하였고, 전남도 서류평가를 거쳐 농식품부의 중앙평가에서 축산환경 분야 전문가 10여명의 평가위원들 앞에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무안군은 금번 공모 사업비 30억을 포함, 축산악취관련 국도비 사업 및 자체사업 등을 총괄하여, 무안군 전체 축산악취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우리군 축산업이 전업화 규모화 되는 추세에서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알



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특히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악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장성군, "옐로우시티 장성의 색(色)다른 매력에 빠져보세요!"



장성군이 '전남 관광 홍보 전시회'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 관광 홍보 전시회는 전라남도인 (주)광주신세계가 협력해 추진 중인 행사다. 오는 7월 11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전남 주요 관광지가 수록된 사진과 영상을 전시한다.

장성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 황룡강과 치유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장성호 등 대표 관광지의 매력이 가득 담긴 홍보영상을 마련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축령산 편백 향기와 황룡강 야생화꽃차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전시 이벤트도 준비했다.

장성 황룡강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잡풀만 가득 자라난 채 방치된 공간이었다. 군은 민선 6기부터 황룡강에서 착안한 옐로우시티(Yellow city) 색채 마케팅을 펼치며, 강변과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늘날 황룡강은 10억 송이 꽃이 피어나는 꽃강으로 유명하다.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기록한 가을

노란꽃잔치의 개최지로, 지역민과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70년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인공호수 장성호는 웅장한 규모를 지녀 '내륙의 바다'라 불린다. 한때 국민 관광지로 지정될 정도로 조명받았으나 이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수변길과 출렁다리를 조성해 가치를 재발견했다. 근래에는 사계절 내내 주말 평균 7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시회를 통해 황룡강 꽃과 장성호 수변길, 편백숲 등 장성이 보유하고 있는 '정정 콘텐츠'들을 한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4일(일요일)에 있을 2차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전라남도 방문의 해'(2022~2023년)를 앞두고, 장성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오홍근/기자

구례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김순호 군수,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지시

구례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를 맞아 주요 피서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김순호 군수는 28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피서객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꼼꼼한 군정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락질서 계도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지시하고 이어 사회적 개편안 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인 방안 검토, 경로당 운영, 6. 22.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 및 지원방안 강구,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구례수목원 수국철 교통안내 방안 검토 철저 등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운영을 강조했다.

구례군은 관내 수락폭포, 피아골, 문수골, 용지동계곡 등 알려진 여름 휴가지가 다수 있어 매년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주요 물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구역 안내판설치, 인명구조함 비치 등 사전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피서요건을 조성 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 음식점에 금지, 바가지 요금 근절 등 행락질서를 계도하

여 구례군을 방문한 피서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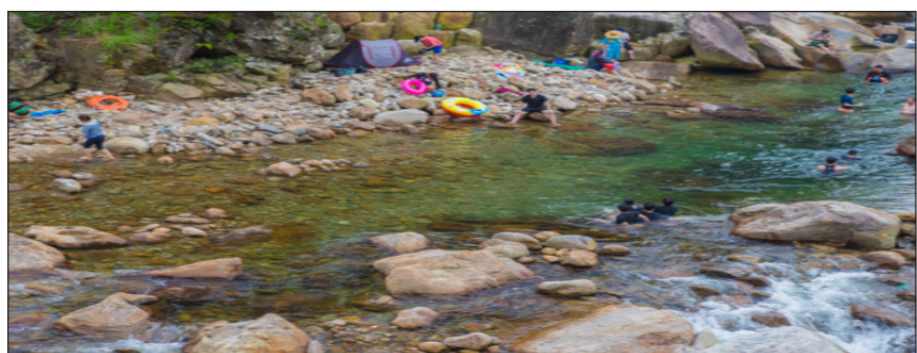
특히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요원 16명을 채용하였고 순천소방서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요원을 양성,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심진강과 계곡 등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어 구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숙박업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빈틈없이 실시 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피서철과 관련하여 관광객과 관광지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지시하고,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사전에 재난재해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구례군은 수국철 구례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여 교통안내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이남출, 최상홍/기자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군산시 1단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다. 다만 군산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을 해당된다.

27일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군산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된다. 1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을 기준으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중요시설의 경우 방역관리 강화로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활동이 금지된다. 단, 백신 1차 접종자는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의 경우 운영이

가능해진다. 군산은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 이서지역과 같이 개편안 전면 시행 시 모든 규제가 일시 완화돼 방역 긴장도 이완 및 유행 확산우려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을 둔다.

이행기간 동안 사적 모임의 경우 8명까지인원이 허용된다.

이행기간을 거쳐 예방접종과 유행 감소 등 상황을 지켜보며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하게 된다. 백 소장은 "거리두기 개편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각종 모임의 활성화와 방심으로 감염확산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일상 회복의 희망은 키우되 방역의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나서주시길"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전남해역, 자연재해 없는 청정어장으로 재생

과밀노후 만 개선...올해 득량만 2개 해역 해수부 시범사업 선정

전라남도는 주요 해역(灣)인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5개 만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퇴적오염물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해 사업 1순위로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해수부 공모에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어장을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이설·재배치하고 오염어장 정화·재순환 체계를 구축해 청정한 어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어장뉴딜사업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기 연작, 혼합면허, 과다 밀집 양식어장에 대해 퇴적 폐기물·과각 수거, 폐지주(호풍)

제거, 모래나 황토 살포, 경운, 바닥 고르기 등 어장 환경 개선과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 어장환경 변화와 과밀 노후화에 따른 패류양식 생산성 약화로 어장환경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면허지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만(灣) 단위 대규모(500ha/개소당)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0개(개소당 50억 원, 총 1천억 원) 만을 대상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계획,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전남도와 경남도의 4개 해역 2천ha를 선정했다.

전남도의 기초조사는 지난해 5개

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침적쓰레기 현존량(35%) ▲주민 어장재생 수요도(35%) ▲경제적 재생효과(20%) ▲생태적 중요도(10%) 평가에서 득량만이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1순위로 선정돼 해수부 시범사업에 득량만의 2개 해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대한 앞으로 상세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류양식어장 1천ha(500ha/2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을 들여 ▲퇴적오염물 제거 ▲해저토 재생 ▲양식어장 이설·재조정 ▲어장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깨끗한 해양보전과 지속가능한 어



장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성 회복과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광주광역시형 자치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는 25일 ‘광주형 자치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가정·학교 폭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여 관장하는 제도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 초기 문제점을 최소화 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좌장을 맡은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자치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최선우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운영문제 분석을 통해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한국형 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위원은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강조하며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경찰권한의 증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해 도시정체성에 부합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조기선 (광주CBS 보도국장), 김계욱 (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양우천 (자치경찰국 정책과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홍일 의원)는 오는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범운영 추진 결과와 7월 본격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윤기자

함평군, 감소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어린 감성돔 방류



함평군은 지난 25일 함평만 연안 해역에 질병검사를 마친 우랑 감성돔 치어 총 27만 9000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연안 해역의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변화로 함평만에 서식하는 어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우랑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함평군 손불면 월천항 일대에서 실시한 방류에는 군 관계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월천어촌계, 지역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청정해역인 함평만 일대가

어류 서식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수년간 지속 실시한 감성돔 치어 방류사업을 통해 이전 대비 어획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를 확인하면서 더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류된 치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 낚시객들에 일정기간 포획 금지 등을 당부했으며,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석기자

구례군, 야생화 가꾸기로 코로나블루 치유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다양한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주는 ‘야생화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9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육은 21명의 교육생이 참여, 자생식물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분화·분경 등 현장실습이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야생화 분화, 분경 만들기와 식재법, 번식법, 병충해 방지법 등 실생활에서 원예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초와 정원을 가꾸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며 답답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기술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4일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교육생들의 심신안정과 생활 속 원예활동 실천으로 건전한 농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남철, 최상홍기자



김영록 지사, 화순 동북천 수해복구 현장 살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난해 수해 피해가 발생해 복구공사가 한창인 화순 동북천을 점검하고, “재해 우려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장마철 범람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동북천은 지난해 8월 400여mm의 집중호우로 제방 12곳, 990m가 붕괴됐다. 전남도는 12억 원의 복구예산을 들여 제방 쌓기 1천82m, 홍수방어벽 구축 115m, 바닥보호공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7월 초 준공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 하도록 공직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며 “자연재해 우려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북천 상류는 동북담과 송단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해 장마철 수위 조절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만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아산시, 친환경자동차산업제대로 키운다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선포식 개최



아산시가 28일 둔포면에 소재한 ㈜토리컴 부지 내 아름다운 녹지공간에서 '친환경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 및 민관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이원준 ㈜토리컴 대표, 윤성환 ㈜성우하이텍 상무, 오미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석연구원, 천경석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산시의 확고한 의지와 산업발전으로 훼손되고 있는 지구의 자연환경에 대한 고찰이 상반된 것이 아닌 양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됐으며,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아산시가 시민, 기업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목적의식에서 개최됐다.

선포식은 먼저 오세현 시장의 아산시 기업유치 현황소개, ㈜토리컴과의 신규투자MOU 협약식으로 막을 올렸으며 ▲친환경산업의 방향과 기업과 지자체의 역할 논의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 자동차연구원의 비전 공유 ▲시민단체와 지자체, 기업의 연대협력방안에 대한 제안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선포식은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포식에 참여한 두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친환경자동차분야의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차 대한민국의 전기차 업체를 선도해나갈 유망기업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컸다.

㈜토리컴은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이차전지 소재사업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물 용도가 제한돼 투자에 차

질을 빚고 있었다. 이에 아산시는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통상 5개월 정도의 계획변경 절차를 불과 2개월 만에 처리, 171억 원을 투자해 부지 내 공장증설과 20여 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업체 최초로 R&D센터를 설립해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으로, 변화하는 산업생태계와 전기차 부품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발맞춰 지난 3월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관련 부품 생산을 위한 관내 720억 원 신설 투자로 360명의 신규고용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내의 미래 자동차 기술을 발굴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아산시에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장재리 일원에 총 50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R&D캠퍼스를 조성,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자동차산업 가속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시가 두 기업이 세계 일류로 도약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자"고 강조했다며,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갈 선구자적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혁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는 더 큰 미래, 행복한 지구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 자리에 모인 기업인들과 시민단체가 한마음을 합쳐 친환경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산시가 예코 50만 자족도시를 이뤄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최재은/기자

이차영 괴산군수, 민선7기3주년 맞아군정성과발표...

군정운영방향도 제시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취임 3년 성과발표와 함께 향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항상 지역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4만여 괴산군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시작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그로인한 경기침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소중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이 군수는 예산 6천억원 시대 개막으로 괴산발전 기반을 강화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9월 3회 추경을 계기로 우리 괴산군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6천억원 시대를 개막했고, 주민 1인당 예산액이 1627만 6천원으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연도별로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 살림규모를 확대했으며, 괴산군미래비전 2040, 순정농업발전·관광종합개발 등 분야별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해 괴산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만 주민의 염원이던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개최 확정, 농업농촌예산 1천억원 시대 돌입,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괴산 순정농업' 개발·보급을 통해 괴산 순정농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환형 생태양양길 조성, 모노레일 민자유치 등을 통해 산막이옛길 시즌2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도 휴양림 조성을 시작하는 등

체류형 관광 강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특히 "3년간 1조 7536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단일규모 역대 최대 투자유치로 시스템반도체 업체 네패스를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반도체 전략·비전이 담긴 K-반도체 벨트에 괴산군이 포함돼 국가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지역 주민숙원사업이었던 괴산~괴산IC 단절구간이 일반국도로 승격됐고, 중부내륙철도 건설, 괴산~음성간 국도 37호선 확포장, 굴티재 위험도로 개통으로 교통망이 확충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있다"며 "괴산을 도심기능 강화를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13건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행복보급차리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군립요양원 건립, 돌봄체계 구축 등 노인,여성, 아동 등 모든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으로 호국보훈의 성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괴산사랑운동으로 군민통합을 통한 지역안정과 군민행복을 실현했고, 신기료폐기물 소각장 및 문장대온천 개발 강력 저지로 청정괴산을 보유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군민 간 화합으로 단 한 차례도 지역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등 현안해결 역량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는 향후 민선7기 군



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군수는 "괴산미니복합타운, 각종 농촌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중심도시인 괴산읍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7기 성과를 가시화하고 미래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생산·유통·가용체계화로 친환경유기농업군 괴산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분야에서도 산막이옛길, 화양·쌍곡구곡, 연풍새재 등 주요관광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산림을 이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힐링·체류형 관광으로 대전환해 관광객 1000만 시대 조기달성 추진을 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신규산업단지 조성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편리한 도로망, 안전한 하천 등 청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100년 먹거리 경제기

반 구축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제공, 군민과 소통·협력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지역과 동화되는 공직 분위기 강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와 소통·협력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군수는 끝으로 "지난 3년은 지속 발전하는 미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남은 1년은 그동안 닦아놓은 성과와 화합된 군민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괴산을 비약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면서 "7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린다"며 "4만여 군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늘 동행하며 힘과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정선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테마형서비스거점조성사업 선정



정선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및 테마형서비스거점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군에서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세종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위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요청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여량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해 문화복지환경복합화를 위한 아우라지 어울림센터조성을 비롯해 문화·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기초생활거점 기능보완을 통한 거점지 활성화 및 중심성 회복과 지역주민들의 소외된 문화복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 등 기능 보완으로 정부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동읍이 테마형서비스거점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국토건설단 숙소를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교류공간 등 신동읍의 역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복합 생활 SOC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테마형서비스거점조성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부여건 개선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당진시, 도민과 함께한 자치권수호 6년사 기념행사 개최



충청남도, 당진시, 충남도계 및 당진시장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당진시장,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계 및 당진시장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한 자치권수호 6년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권수호활동 영상 시청, 감사패 수여, 서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20여 년간 아산만 일원에서의 당진항 매립지 분쟁

의 기록을 담은 아산만 분쟁사를 소개했다.

과거 충청남도과 당진시는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의 펴택·당진항매립지 폐택시 일부귀속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2021년 2월 4일 최종 기각됐다.

6년의 소송기간 동안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충남도계 및 당진시장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020일 간의 촛불집회, 1,415일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 및 581일간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염원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항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신 도민과 시민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와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해 내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동원/기자

대전 동구, 28일부터 경로당 162개소 운영 재개

대전 동구가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 휴관 중인 경로당을 2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한다.

이용대상은 코로나 19 백신 1차 또는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이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성 프로그램 및 시설 내 취식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구는 경로당 회차 또는 총무를 감염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출입자

명부 관리, 발열체크, 시설 방역 및 회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총괄 책임을 맡겨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그동안 경로당 운영 중단에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경로당 개방을 통해 그동안 우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셨던 어르신들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찾아가며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경로당 운영 재개를 앞두고 폭염을 대비해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해 지난 1일부터 관내 경로당 160개소 에어컨 300여 대를 일제히 점검하고 내·외부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한 바 있다.

고정화/기자

홍성소방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홍성소방서는 오는 7월 6일 시행일에 맞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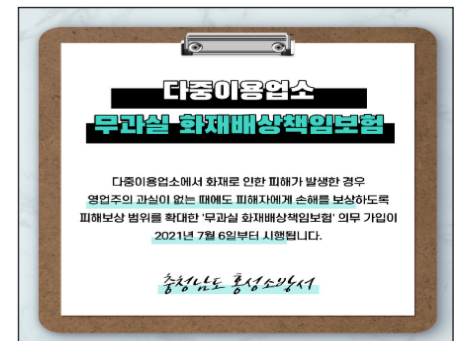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지만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 미상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약관을 추가(갱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신준현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보호를 위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필수"라며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보장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함평군, 첫 아너 소사이어티 1,2호 나란히 탄생

전 국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에서는 최초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합평 1, 2호(전남 114호, 115호) 회원이 나란히 탄생했다.

동건종합건설(주) 이흥재 대표이사(취안국스치로폴 김성모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합평군 손불면 출신 기업가이며 죽마고우인 이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 5월 12일과 17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함평군 돌봄이웃복지사업비로 각각 5년간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면서 아너 소사이어티 합평1호, 합평2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회원 가입식은 25일 함평군청에서 이상의 합평군수,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흥재 대표이사, 김성모 대표이사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너 소사이어티 인증패와 뱃지 수여 등으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흥재 대표이사는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



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성모 대표이사는 “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

천해 주시고,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주신 두 분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5년 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기석기자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 "사랑의쌀머핀나눔" 취약계층 전달

용인시는 지난 24일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회장 박선주) 소속 백옥쌀가공연구회 여성 농업인 30명이 쌀 머핀 1500개를 만들어 용인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조혜영)는 취약계층 홀로머핀 (양치면, 신갈동, 보라동, 김량장동, 역북동)에게 사랑의 쌀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국생활개선 용인시연합회가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회원 재능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는 지역 돌봄 봉사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난 4월부터 여성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디저트와 퓨전 떡 등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23명이 ‘한국형 디저트 마스터’ 등 자격증을 취득했다.

백현실 백옥쌀연구회장은 “회원들이 새로 익힌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 용인시 연합회 박선주회장은 백옥쌀가공연구회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능 활용을 하여 지역내 어르신에게 직



접 쌀빵을 만들어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혜영 회장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요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쌀머핀 나눔행사를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만들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취약계층 홀로 머핀에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쌀머핀나눔행사를 하기 위해 새벽에 나와 준비하고 늦게까지 함께한 최일숙팀장께 다시한번

감사를 전하며 양치면 91세된 독거노인 장00 어르신은 쌀로 만들어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아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먹어본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선생님들께 잘 먹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하며 손을 꼬옥 잡아 주셨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재능을 활용해 이웃 돕기에 나선 백옥쌀연구회 모든 분께 감사드리다”며 “시 차원에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포항시 명예퇴직 황병기 국장 아름다운 기부

도시해양국장 역임 시 영일만관광 특구지정 등 포항 미래 발전 초석 다져



포항시장학회는 이달 말 정년 퇴임하는 황병기 도시해양국장이 5백3십만 원 상당의 공직자 마지막 월급 전액을 포항시 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황병기 국장은 “시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고, 선후배 공무원들이 잘 도와줘, 지금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고 무사히 마감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후학양성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다.

황병기 도시해양국장은 1982년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013년 체육지원과장, 건설과장, 홍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9년 지방공무원의 꽃인 시기관으로 승진해 도시해양국장을 역임하는 등 39년을 포항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결과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국토해양부장관, 경북도지사 등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포항시 체육지원과장 재임 시 포항시 체육발전을 위해 경북도민체전 4번의 시부 종합우승,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포항시 유치, 세계군인체육대회대회 등을 추진해 포항시를 체육의 도시로 발돋움시켰으며, 건설과장 재직 당시 흥해 지진피해 개인 주택철거 등을 추진하는 등 지진피해 복구와 지진피해주민의 재건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도시해양국장을 역임하면서 영일만관광 특구지정, 국제여객부두 준공, 포항해상케이블카·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첨단해양산업R&D센터·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공사 착공, 곡강 IC 연결도로 개설 등 포항의 미래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국장은 “흥해 지진 극복과 인구회복,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이강덕 시장님과 함께 2200여 명의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기현기자

의령군, 1일 명예군수 김기태 용덕면체육회장 선정

오태완 의령군수는 25일 군수실에서 김기태 용덕면체육회장을 제5대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고, ‘군민 우선, 화합 의령’의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실천을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태 명예군수는 이날 오전에 ‘1일 명예군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2021년 군정 추진방향을 파악하는 등 주요 군정을 살폈다. 오후에는 군민의 주요 관심분야로 11월10일 유동 경영정상화 추진현황과 의령군 하수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김 명예군수는 “부실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토요일유동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들으니 불신이 해소된다.”라고 밝히고, “오·폐수처리 과정을 점검해보니 환경운동은 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태완 군수는 “취임 이후 농업분야의 혁신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토요일유동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군민과 지역 농업인이 신뢰하는 유통회사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1일 명예군수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 16개소와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37개소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대처와 맑은 물 공급으로 청정 의령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고양시, 김호중 팬클럽 셀럽아리스 1,000만 원 기부

고양시는 가수 김호중 팬클럽 봉사동호회 ‘셀럽아리스’가 지난 6월 23일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셀럽아리스는 지난 6월 3일에도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에 5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들은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와의 소중한 우연을 인연으로 이어가고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 “작은 마음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하게 돼 기쁘고, 봉사를 통해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6월 초 기부에 이어 이번 기부까지 결정해주신 셀럽아리스 분들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이 고양시 장애인 체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삼척시, 故 최일호씨 유가족 고인의 유지 받들어 삼척향토장학금 기탁



삼척향토장학재단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힘써달라는 충고한 뜻을 담은 장학금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16일 지병으로 별세한 故 최일호씨 부인인 황국자씨는 지난 25일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삼척향토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고인은 삼척시어업인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평소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

었다. 또 ‘삼척수협 후진이촌계장’, ‘삼척시 여촌계장 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인의 충고한 뜻을 잘 이어받아 삼척시 인재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93년 설립된 삼척향토장학재단은 현재까지 2,266명에게 31억3천8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동원기자

성남시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 79명 승진

조직 개편 등 요인으로 모두 770여명 자리 이동·분위기 쇄신

성남시는 7월 1일자로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 79명과 신규자 71명을 포함한 총 770여명이 자리를 옮겼으며, 여성공직자 승진 및 주요보직 발탁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했다.

이번 인사는 일부 부서의 통합 및 인사행정과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명예·정년 퇴직자 결원 보충 등 요인이 발생해 이뤄졌으며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이하 75명이 승진 임용됐다.

4급 서기관 인사는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이 복지국장, 임명준 예산재정과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진명래 물순환과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이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각각 승진하여 보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소수직렬 승진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직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성남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예측가능하고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식은 7월 1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오전 9시반과 11시 승진자와 신규직원 두 번에 나누어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인천시장 옛 관사, 7월 1일 시민의 품으로 ‘광주국악상설공연’으로 무더위 날려요

풍부한 콘텐츠로 시민들께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 것

인천광역시시는 그동안 관의 공간이었던 옛 송학동 시장관사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단장해 7월 1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이름은 지난 5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인천시민애집”으로 시민이 직접 선정했다.

옛 송학동 시장관사(이하 인천시민애집)는 인천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중구 송학동(신포로39번길 74)에 자리한 건물로 대지면적 2,274㎡(688평), 건축연면적 368.46㎡(112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본관동과 관리동, 야외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옛 송학동 시장관사가 자리한 곳은 개항 이후 각국조계지 독일인 거류지에 속했으며, 일본인 사업가의 별장으로도 사용됐다. 이 건물은 광복이후로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1965년에 인천시가 매입해 1966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존한옥을 신축했다. 1966년 14대 김해두 인천시장부터 최기선 민선초대 시장까지 17명이 시장관사로 사용했으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역사자료관(시사편찬위원회)으로 쓰였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출범 이후 2018년 10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개항장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관사와 제물포구락부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 재생을 추진했다. 이후 시장관사를 재단장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계획 아래 정밀진단,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등 약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7월 1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 가게 됐다.

옛 송학동 시장관사는 본관동, 관리동, 야외정원 각 공간이 가진 특징을 적극 활용한 전시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항장의 상징적 복합역사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곳은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갖추고, 개항된 전통건축양식과 일본건축양식이 혼합된 근대주택의 형태로서 보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고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어 올해 안으로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정이다.

먼저 본관동은 ‘제물포 한옥 갤러리’로 명명하고 역사복합터, 역사회랑, 디지털 갤러리, 전시실로 조성된다. 시장 점부실로 사용되던 공간은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 관련 도서를 편히 누릴 수 있는 ‘역

사복합터’로 조성된다. 그리고 좁은 복도는 개항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천역사 타임라인이 ‘역사회랑’ 전시로 구현된다. 다이닝 룸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디지털 갤러리’로 꾸며져 디지털 패널(스마트 사이니지)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가 펼쳐진다. 안채로 사용되던 방들은 아날로그 전시실로 조성되어 시장관사에 얽힌 인물들의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통한 ‘휴먼라이브러리’ 전시가 전개된다. 더불어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 기념 전시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를 통해 인천직할시 승격 과정과 인천의 변화상을 조명한다.

경비동은 ‘역사전망대’로 명명하고 조망 데크, 역사 굿즈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망데크는

서해와 개항장 일원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살렸다. 그리고 인천 역사를 주제로 한 굿즈 전시와 QR코드, FPV 드론 기술을 적용한 플라잉 제물포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나아가 시민 개방형 공유공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00년이 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야외정원은 ‘제물포 정원’으로 명명하고 독특한 조경과 식재된 나무에 대한 스토리텔링 나무열전 산책로, 폭 15m, 높이 약 7m 크기의 석축 벽면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증언해주고 있는 인천의 문화유산 10선 ‘히스토리 월(역사담배락)’ 설치 그리고 작은결혼식, 작은음악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 과장은 “옛 시장관사의 보존 가치가 높아 건물은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일부 천정을 개방해 한옥구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동도 온전히 시민의 힘으로 돌려드리고자 설계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은 물론 주변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고 풍부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 제공해 복합역사 문화공간으로 시민들께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개방일은 7월 1일, 운영 시간은 09:00~18:00,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단, 7.1.(목)~7.4.(일)은 09:00~21:00 연장 운영한다.

개방 행사는 7월 1일 (17:50~19:30)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식전공연(아마빌레앙상블 초청 공연), 개관식 및 현판식, 작은음악회(국악 퓨전밴드 ‘은도’, 가수 ‘하림’ 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개방행사는 ‘인천 독립 40주년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7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해 전통국악, 창작국악, 우리춤,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7월 첫 공연인 1일에는 올라팀이 ‘ola와 함께 흥이 올라!’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양방언이 작곡한 퓨전오케스트라 곡인 ‘프론티어(frontier)’ 퓨전 국악관현악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가요, 삼도사물놀이 등 전통국악과 다양한 장르와 접목한 색다른 국악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2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타악기인 경고(작은 장고)를 손에 들고 추는 춤인 ‘경고무’, 단막창극, 판국 등을 무대에 올린다.

3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 축제’라는 주제로 무더운 여름날 상설공연장을 찾은 시민에게 신명나고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들려준다.

도라지를 소재로 작곡된 우리나라 대표 신민요인 ‘도라지타령’ 국악관현악 무대를 비롯해 가야금·해금2중주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흥겨운 장단과 신명나는 가락으로 엮은 별달거리 장단이 돋보이는 곡인 관현악 ‘축제’, 타악과 태평소의 어울림이 돋보이는 관현악&연희 ‘판놀음’ 등 우리 가락의 멋과 흥을 전한다.

16일에는 향산주소연 판소리보존회 팀이 ‘가자! 수궁으로’라는 주제로 시원한 국악 무대를 펼친다.

이날 공연은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육지로 가는 도중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해상과 산천의 경치를 읊은 ‘고고천변’ 가야금 병창 공연과 임방울국악제에서 명장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소연 명창이 판소리 수궁가 중 별주부가 토끼를 찾



아가는 과정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을 위기를 피해서 극복하는 내용인 ‘별주부 호랑이 만나는 대목’을 시원하게 선보인다.

이밖에도 사물놀이, 국악가요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잇따라 진행한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에 진행되는 공연은 문화예술회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좌석 한 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를 통해 관객 사이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용 객석은 50% 미만으로 줄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공연장 입장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를 해야 관람할 수 있다.

김덕용기자

미리 만나는 자라섬 재즈, 제2회 자라섬온라인올라잇재즈페스티벌 개최



대표적인 가을 야외 음악 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10월 자라섬에서 오프라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을 알린 가운데 오래도록 자라섬 재즈 무대를 기다려온 이들을 위해 ‘미리 만나보는’ 자라섬재즈를 선보인다.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양일간 국내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들과 함께 제2회 자라섬온라인올라잇재즈페스티벌을 개최, 재즈 팬들을 한 계절 먼저 찾아간다.

[2회를 맞이한 자라섬 온라인올라잇]

더욱 완성도 높은 온라인 페스티벌 예고...올해는 오프라인 관객과도 만난다.

자라섬 온라인올라잇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페스티벌계와 재즈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0년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형식의 페스티벌 콘텐츠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재즈 아티스트 7팀의 라이브 공연과 역대 자라섬재즈 레전드 아티스트의 실황 영상을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여 3일간 총 시청 수 10만 뷰를 달성하며 새로운 온라인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자라섬 온라인올라잇은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021 자라섬 온라인올라잇은 가평의 음악 복합 문화공간 ‘음악역 1939’ 뮤직홀에서 진행되며, 양일간 각 60석 내의 객석을 오픈, 오프라인 관람권을 구입한 이들에 한해 라이브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또, 유료 생중계 온라인 관람권을 구입한 이들은 네이버 TV를 통해 어디서나 실시간 송출되는 온라인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제2회 자라섬온라인올라잇은 전년도에 비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영상과 음향으로 최고의 음악 영상 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 재즈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한 여름밤의 재즈 향연]

이번 공연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한국 재즈계의 레전드 피아니스트 임인건, 국내 대중음악계에 ‘하모니카 봄’을 일으킨 영혼을 울리는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싱

어송라이터 및 작곡가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로 활동하며 이 시대의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적 위로를 전하는 전진희, 정통 재즈 트리오의 정수를 보여줄 고희안 트리오, 한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블루스 재즈 기타리스트 찰리정, 고요하면서도 매혹적인 목소리로 환율한 소리를 선보이는 재즈보컬 Ash 등 총 6팀의 국내 최고 재즈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 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라이브 영상도 함께 선보이며 열 새없이 이어지는 다채로운 재즈 무대로 재즈팬들에게 선물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자라섬 온라인올라잇은 안전한 축제 환경을 위해 자체 방역 체계를 세우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스태프 전원은 사전 코로나 19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행사에 투입된다.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진행되는 자라섬 온라인올라잇은 7월 1일부터 YES24 티켓을 통해 오프라인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일권 5만원으로 60석 한정으로 판매된다. 온라인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네이버 tv 후원라이브를 통해 중계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일권 2만원으로 세부적인 예매 방법과 관람 방법은 추후 자라섬온라인올라잇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17일간 온라인 페스티벌을 선보였던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올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오프라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자라섬에서 즐기는 야외 페스티벌을 그리워하는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전순희기자

구미시 색소폰과 어쿠스틱의 만남, 여름밤 음악의 향연 펼쳐

구미시에서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으로 6월 26일 오후 7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큐브에서 「내가 구미의 문화다」 6월 공연을 개최하였다.

「내가 구미의 문화다」는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구미는 공연으로, 이날 공연에서는 색소폰 동아리 ‘더역사운드’(대표 김기환)와 어쿠스틱 버스킹밴드 ‘숨밴드’(대표 허민희)가 무대에 올랐다.

먼저 무대를 장식한 ‘더역사운드’는 세대별 트로트 명곡들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흥을 돋웠으며, 이어서 등장한 ‘숨밴드’는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잔잔한 가요들로 무대를 채웠다.

장세운 구미시장은 인사말에서 “내가 구미의 문화다”는 시민들이 만드는 무대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구미시의 주인으로서 인문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앞으로 10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드림큐브에서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김세기기자



‘1883 꺼지지 않는 개항의 밤 이야기’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인천광역시시는 “팔색향유, 1883 꺼지지 않는 개항의 밤 이야기”라는 주제로 2021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7월 1일부터 4일간 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성공한 사례로서 야간에 문화재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문화유산활용 프로그램이다.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며 문화재청과 인천시가 후원하는 문화재 야행은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문화재 야행’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추가개방(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애집), 누들플랫등) 및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의 개항기 역사를 오롯이 지켜본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인 “자유공원 플라타너스”(1884년설립 추정)의 스토리텔링 미디어 연출 등 다채롭게 구성한다.

문화재 야행의 진수인 야간 ‘문화재도보탐방’ 체험프로그램은 ‘김구와 인천’, ‘청국 조계’, ‘일본 조계’, ‘각국 조계’, ‘근대 경계’, ‘종교를 통한 근대문화 전파’를 주제로 한 6개의 코스로 운영하는데 문화재 및 문화시설 16개소가 야간에 개방되어 가족과 함께 문화재를 탐방하는 교육 및 역사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김종남기자

민선7기 경남도,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민생은 더 보듬어”

2021.7.1.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민생분야 예산 비중 53.6%로 증가, 대상 사업수도 193개로 늘어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민선 7기 경상남도 민생예산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민생분야 예산이 민선 7기 경남도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민생분야 예산액은 2018년에는 2조 7,762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5조 748억 원으로 2조 2,986억 원이 늘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동안 민생분야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1%에서 53.6%로 15.5%p 증가했고, 연도별 대상 사업수도 140개에서 193개로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 매칭사업의 예산 비중이 지난 3년간 7.9%에서 9.4%로 1.5%p 증가한데 비해 도 자체 사업 비중은 4.4%에서 7.5%로 3.1%p 증가해(증가율 70%) 국비에 전적으로 의존 않고, 경남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민생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민생분야 예산 확대를 통해 △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 △ 민생 안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세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경남도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2020년 민생분야 예산(5조 748억 원)을 살펴보면 공적 이전소득과 이자보전 금액은 전년도 대비 1조 5,784억 원이 증가한 3조 9,729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및 각종 사회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추진

해 도민 가계소득 위기를 줄이는 데 노력했다.

둘째, 민생 안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2018년 20억 원에서 2020년 72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주거 생활비 지원도 3년간 835억 원에서 1,299억 원으로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정 유공자 및 전물균경유족 명예수당 확대 등 공익적 취지의 맞춤형 지원도 꾸준히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령, 성별 구분 없이 도민 모두에게 재정 지원이 골고루 이

뤄질 수 있게 노력했다.

출산·보육 부문은 2018년 7,169억 원에서 2020년 9,525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도 동기간 동안 2,191억 원에서 4,865억 원으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활동 지원 예산도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거 및 임대료 지원, 학자금 이차지원, 구직 활동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됐고, 금액도 2018년 22억 원에서 2020년에는 21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경수 도지사는 어려울 때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정의 중요성이 더 크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한 불을 끄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민선7기 경남도정에서는 도민들의 가계소득을 챙기고, 민생을 더 보듬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승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맞춰 전자고지자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린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

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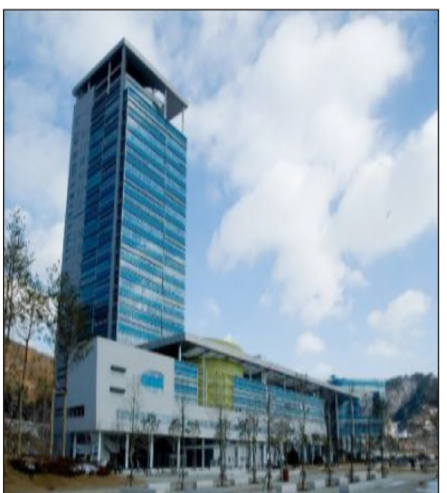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승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전남 지역경제 살린다

남도장터 등 7개 지자체몰라이브커머스 통한 대대적 판촉 나서



전라남도는 오는 7월 11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남도장터와 시군 온라인몰을 참여시키고, 라이브커머스와 할인행사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통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대형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채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다.

이 기간 전남도는 ▲지자체 온라인몰 할인행사 ▲도내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특화상품 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 할인판매 ▲제로페이 ‘전남 행복쿠폰’ 10% 할인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선 도내 24개 업체가 참여하는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기간별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330명을 추첨해 인바디밴드, 마사지건, 치킨, 커피 등 4종의 경품을 제공한다. 나주 오색마을 등 6개 시군 온라인에서도 최대 40% 할인행사를 벌인다.

라이브커머스는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선 7월 1일 오후 2시, 7일 오후 2시 장아찌, 멜론 등을 판매해 기업과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TV홈

쇼핑 채널 ‘홈쇼핑’에서도 28일 오후 4시 50분과 7월 둘째 주 전북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 할인 혜택을 주는 모바일 전남 행복 쿠폰 발행 이벤트도 추진한다. 행복쿠폰은 1·3·5만 원 권 3종류로 발행했다.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광주은행 개인뱅킹, 페이코 등 19개의 제로페이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부와 연계해 G마켓 온라인 기획전, 실시간 네이버쇼핑라이브 판매, 롯데마트 분당점 현장 할인판매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함께 추진한다.

소셜링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자의 소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동행세일을 통해 전남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릴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코로나 효자마케팅 라이브커머스로 2시간만에 100개 상품 팔아

라이브커머스로 2일, 2시간 만에 대구여행상품 2,500회 조회, 100건 판매 쾌거



대구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유일의 종합관광박람회인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경북도와 공동으로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고, 참가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대구여행상품을 판매한 결과,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코트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후원했

고, 지자체, 관광청, 관광업체 등 40여 국가에서 300여 기관 및 업체 등 400여 부스가 참여해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관광박람회 기간 동안 다양한 대구·경북 관광콘텐츠 정보 제공과 체험 이벤트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커머스와 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대구여행상품을 판매해 실질적인 관광객이 대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세일즈 마케팅을 펼쳤다.

남궁영기자

강원도-베트남 온라인 수요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수출계약 성과 속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베트남 온라인 수요수출상담회’ 참가기업들의 상담성과가 속속 실제 수출계약 체결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온라인 수요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강원도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금년 상반기는 도내기업 35개사(생활용품6/의류기8/식품12/화장품9)와 현지 바이어 45개사가 수출상담에 참가하며 8건의 수출계약(추진중 포함) 성과를 냈다.

특히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베트남 수출을 시작하는 도내기업(3개사, 바다용품/컨택트렌즈/고주파 미용기기 제조사) 제품의 경우 바이어가 현지 제품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등 추가 계약을 예고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강원도는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현지에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바이어의 판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병행 지원하여 하반기 수출계약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반기 「베트남 온라인 수요수출상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은 7월 5일부터 강원도수출기업포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현지 유력 바이어와 수출상담 외, 바이어가 기업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e가탈로그 제작과 샘플 물류비 등이 지원된다.

한성규 강원도 일꾼부미주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도 분명 존재한다. 이번 「베트남 온라인 수요수출상담회」를 통해 거둔 수출계약 성과가 비대면 수출상담도 기업들이 잘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수출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한국관광·MICE의 모든 것 한자리에 ... ‘한국관광박람회’ 6월 29일부터 인천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1 한국관광박람회’를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송도컨벤시아와 인천파라다이스시티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박람회’는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국내 대표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박람회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대표로 ‘한국여행박람회’, ‘코리아 럭셔리 트래블마트’,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박람회’ 4개가 통합된 박람회이다.

이번 행사는 백신 접종으로 해외 이동과 관광 및 MICE 시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원을 집중해 한국을 홍보하고 업계에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통합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

첫 날인 29일에는 코로나로 단절된 국제 교류가 다시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아 대한민국 광범인 인천 영종도에서 통합 개막식이 개최된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될 개막식에는 창치페이 싱가포르관광청 부청장, 영국 여배우이자 여행 프로그램 진행자인 조애나 럼피가 홀로그램으로 출연해 각국의 관광산업 재개 전략과 관광 교류의 가치에 대해 국내 마이스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IT 기술과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우리

나라의 야간관광이 주는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30일부터는 37개국 1,500여 명의 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전국의 250여 관광·MICE 업체가 총출동하여 코로나 이후 한국 방문 수요 확보를 위해 온라인 B2B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박람회 별 시의성 있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인천시는 ‘포스트 코로나 MICE 생태계 회복과 상승’이라는 주제의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컨퍼런스’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사업에 대한 홍보와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MICE 피칭(디지털 회의 기술 보유 신생기업 홍보), 온라인 라이브 팸투어, 랜선 여행 상품 판매, 웰니스 체험, SNS 이벤트 등 한국의 관광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B2B, B2C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올해도 온라인으로 전시가 개최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4개 박람회를 통합해 규모를 키워 개최하는 만큼 코로나 이후 폭발하게 될 관광·MICE 수요를 불발할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간동거' 장기용-이혜리, "여우담 커플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끝까지 웃음과 설렘 선사할 것"

tvN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과 이혜리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한층 깊어질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간 떨어지는 동거'(이하 '간동거')(연출 남성우/극본 백선우, 최보림/제작 스튜디오드래곤, JTBC 스튜디오)는 999살 구미호 어른신 신우여와 쿨내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슬로 인해 일렬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 극중 장기용(신우여 분)과 이혜리(이담)는 연애 시작부터 구미호와 인간의 스펙터클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들었다 놔다 하고 있다.

이에 장기용과 이혜리는 "여우담 커플을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청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시청자들의 성원에 감사했다. 또한 장기용은 "저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둘의 로맨스를 응원하면서 보고 있다"고 전한데 이어 이혜리는 "여우담 커플을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항상 보고 있다. 매번 감사하다. 반응을 볼 때마다 시청자의 입장이 된 것 같아 즐겁다"며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장기용과 이혜리는 각각 999살 구미호 신우여와 99년생 인간 이담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특히 장기용은 '장기용 얼굴만 봐도 즐긴다'는 반응을 얻을 정도로 매력적인 비주얼과 분위기로 여심을 흔들고 있는 중. 이에 대해 장기용은 "쑥스러우면서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좋다. 요즘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말씀해주셔서 행복하게 지내



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장기용은 이혜리와 커플 케미에 대한 호평에 대해서도 "이혜리 배우가 너무 잘해준 덕분에 좋은 시너지와 케미스트리가 나온 것 같다. 또 대본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부터 모든 관계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입체적이라고 생각했다"며 파트너인 이혜리와 제작진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다.

나아가 장기용은 지난 7회 우여와 매구(인간이 되지 못한 구미호가 악귀로 변한 것)를 오가는 1인 2역 연기로 뜨거운 반응을 모은 바 있다. 장기용은 "무섭다는 핑이 많더라. 우여로 변신한 매구 때문에 담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긴장감 있는 씬이었는데, 시청자 분들도 그렇게 느껴 주시고 몰입해 주신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 드린다"면서 "사실 훌륭한 CG와 배경이 다 만들어준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판타지가 처음이다 보니 이렇게 CG가 많이 들어간 장면들은 찍어보지 않았다.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더라"며 소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혜리는 할말 다하는 당찬 99년생 이담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공감과 지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혜리는 "하나하나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틈날 때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보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담이의 모습이 멋지다', '담이의 솔직함이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저 또한 담이가 당당하고 능동적인 캐릭터로 느껴주시길 바라며 연기 했는데, 이런 노력과 바람이 잘 전달된 것 같아 뿌듯

하고 또 감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혜리는 시청자들에게 설렘과 미소를 선사했던 '여우담 커플'의 달달한 장면들 중 '최애 장면'을 꼽기도 했다. 그가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장면은 우여와 담이가 처음 만난 1회 '길거리 첫 만남' 씬. 이에 대해 이혜리는 "담이는 취한 재진이 우여의 차에 실례를 하고 이후 차주인 우여를 보고 놀라는데 반면 우여는 굉장히 담담하다. 상반된 두 캐릭터의 매력이 드러나며 향후 이어질 '여우담 커플'에 대한 궁금증을 높여준 씬 같다"며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장기용과 이혜리는 각 캐릭터의 매력이 드러나며 향후 이어질 '여우담 커플'에 대한 궁금증을 높여준 씬 같다"며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장기용과 이혜리는 각 캐릭터의 매력이 드러나며 향후 이어질 '여우담 커플'에 대한 궁금증을 높여준 씬 같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혜리는 "담이와 우여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우여가 인간이 되기 위해 둘이 함께 풀어야 할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면서 "담이는 계선우(배인혁 분)와 붉은 실로 얽힌 운명 앞에서 끊임 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담이가 첫사랑인 우여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tvN '간 떨어지는 동거'는 매주 수목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영화 '싱크홀' 7, 8월 극장가 본격 여름 흥행작들 쏟아진다!

도심 속 초대형 싱크홀을 소재로 만든 재난 버스터 '싱크홀'이 오는 8월 극장 개봉을 확정 지은 가운데, 극장가에 활력을 예고하는 '싱크홀', '블랙위도우', '모가디슈' 등 여름 대작들이 관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영화 '싱크홀'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대작들이 7-8월 극장가 개봉을 확정 지으며 극장에서 불만만 작품을 기다려온 관객들의 기대를 더하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블 스튜디오의 액션 블록버스터 '블랙 위도우', 류승완 감독과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등 배우들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모가디슈', 국내 최초로 초대형 싱크홀 재난 상황을 소재로 한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 주연의 재난 버스터 '싱크홀' 등 여름 흥행을 책임질 다양한 작품들로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먼저, 오는 7월 7일 압도적인 리얼 액션과 '블랙 위도우'의 숨겨진 스토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 위도우'가 전 세계 동시 개봉한다.

해의 첫 시사 후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영화!"(ComicBookMovie.com), "대단하고 놀라운 작품!"(DeseretNews) 등 작품에 대한 찬사뿐 아니라 "스칼렛 요한슨과 플로렌스 퓨의 경이로운 연기!"(screenrant), "케이트 쇼트랜드의 완벽한 연출력!"

역대 최고의 여성 슈퍼히어로 무비!"(ComicBookMovie.com) 등 배우들의 놀라운 열연과 케이트 쇼트랜드 감독의 신선하고 뛰어난 연출력까지 최고의 평이 쏟아져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드높인다.

이어 오는 7월 28일 류승완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가 관객들을 찾는다.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의 생사를 건 탈출을 그린 영화. 실감나는 절박함과 긴박함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100% 촬영된 작품으로, 무엇보다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구교한 등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출연하며 오랜 기간 한국 영화 기대작을 기다려온 관객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극장 개봉을 확정 지은 '싱크홀'은 여름 흥행 불패 재난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스케일감 있는 화려한 볼거리와 재미를 예고한다.

지금껏 본 적 없던 초대형 싱크홀 재난 상황을 소재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영화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버스터.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타워'로 흥행에 성공한 김지훈 감독과 '명량' '더 테러 라이브' '타워' 등을 완성한 총무로 최고 제작진들이 함께 해 2021년 새로운 '재난 버스터'의 탄생을 예고한다.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 등 풍성한 재미를 보장하는 총무로 특급 배우들이 지하 500m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사투가 관객들의 궁금증을 더한다.

대작 개봉 소식과 함께 활기를 띠는 2021년 여름,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의 재난 버스터 '싱크홀'은 8월 극장에서 개봉한다.

최재은/기자

'이다해♥' 세븐, 뮤지컬 '사랑했어요'로 3년만에 복귀

세븐이 주크박스 뮤지컬 '사랑했어요'로 3년 만에 무대에서 팬들과 만난다.

스타이엔터테인먼트는 29일 "세븐이 뮤지컬 '사랑했어요'에 윤기철 역으로 캐스팅되었다"고 밝혔다.

뮤지컬 '사랑했어요'(기획/제작(주) 호박덩굴)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음색과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곡들로 큰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가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싱어송라이터故김현식의 명곡으로 이루어진 주크박스 뮤지컬로 뜨겁게 사랑을 노래한 객(歌客)으로 불리는 김현식만의 섬세한 노랫말과 가슴을 울리는 진한 사랑의 감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이 시대에 저마다의 사랑과 아픔을 간직한 우리에게 따스

한 위로를 건네며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극중 세븐은 준혁의 절친한 동생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경영학도이자 영혼을 사로잡는 사랑 앞에 인생의 모든 걸 거는 윤기철 역을 맡아 정적인 가창력으로 사랑에 직진하는 기철의 모습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설렘을 전하며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03년 Just Listen으로 데뷔한 세븐은 '와줘', '열정', '라라라' 등의 히트곡으로 가창력은 물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가수로 K팝 부흥을 이끌었으며, 이후 꾸준한 음악활동을 이어가며 미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또한 세븐은 음반 외에도 뮤지컬 '엘리자벳', '도그파이트'를 통해 안정

적인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예능, 드라마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3년 만에 무대에 오르는 세븐의 이번 열연에 또 한번 기대가 모아진다.

출연을 앞둔 세븐은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에 서는 만큼 설레고 기대된다"며, "감동 가득한 기철의 모습을 보여줄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세븐이 출연을 확정 지은 뮤지컬 '사랑했어요'는 8월 14일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개막하여 10월 31일까지 공연되며, 오는 7월 6일(화) 오후 2시에 1차 티켓 오픈을 진행하며, 인터파크 티켓과 YES24에서 예매 가능하다.

최만식/기자



박희본, 드라마 '해피니스'캐스팅 확정... 로맨스 웹소설가로 변신

배우 박희본이 드라마 '해피니스' 출연을 확정하며 약 2년 만에 시청자들과 만난다.

드라마 '해피니스(Happiness)'(연출 안길호, 극본 한상운,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계층사회 축소판인 아파트에 고립된 이들의 생존기를 그린 도시 스릴러다.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여 사는 대도시 고층 아파트가 신종 감염병으로 봉쇄되면서 벌어지는 근열과 공포,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와 심리전이 치밀하게 그려진다.

극중 박희본은 로맨스 웹소설가 '나현경'을 연기한다. 아파트 봉쇄로 인해 원치 않게 오빠와 한집 살림을 하게 되지만, 당당한 듯 양보를 중용하는 오빠와 갈등을 빚는 인물. 나현경의 내면과 행동을 온전하게 표현해 캐릭터를 완성해낸 박희본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간 드라마 '도깨비', '아르곤', '드라마 스테이지 -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아는 와이프'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영풍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매력과 인상 깊은 연기, 캐릭터와의 높은 싱크로율을 선보여온 박희본. 특히, 드라마 '시크릿 부티크'에서는 재벌가 장녀이자 독기 어린 애증의 욕망에 위태남으로 분해 악녀의 북잡다단한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 전작들에서 보여준 털털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크랭크업을 알린 영화 '사일런스'(가제, 감독 김태곤·제



작 김용화)에 합류, 짙은 안갯속 붕괴 직전의 공황대교에 고립된 '미란'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전망이다. 이처럼 매 작품 극 속에서 온전히 캐릭터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박희본이기에 그가 섬세하게 그려낸 나현경에 벌써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희본이 출연하는 드라마 '해피니스'는 '정춘기록', 'WATCHER(왓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비밀의 숲' 등 장르를 불문하고 세밀한 연출의 힘을 보여준 안길호 감독과 'WATCHER(왓쳐)', '굿 와이프'를 집필한 한상운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전순희/기자

임지안, 6개월 만에 신곡..이별 발라드 '일기예보'



임지안은 오는 7월 7일 정오 발라드 장르의 신곡 '일기예보'를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아무일 없던 것처럼'을 선보인 이후 약 6개월 만에 내놓는 신곡이다.

소속사 에이티엔터테인먼트는 '일기예보'는 이별을 겪은 뒤 문득 밀려오는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 쏟아진 눈물을 일기예보에 없던 비에 빚대어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라고 소개했다.

임지안은 그동안 '서울은 지금 흐림', '그때 널 잡았다면 달라졌을까' 등의 곡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JTBC 인기 음악 예능 '히든싱어6' 백지영 편에 모창 능력자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쟁쟁한 음원 강자들이 대거 출격하는 7월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는 임지안이 신곡 '일기예보'로 차트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지안은 컴백에 앞서 공식 SN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신곡 관련 티징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서울발레시어터, 신작 어드벤처 판타지 발레 '피터팬'

서울발레시어터(단장 최진수)의 신작 '피터팬'이 7월 10일 오후 2시, 6시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선보인다.

피터팬은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쇼케이스로 첫선을 보였으며, 올해 서울문화재단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업그레이드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피터팬은 서울발레시어터 고유의 색깔과 대중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받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백설공주', '댄싱뮤지엄'의 뒤를 잇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이다. 원작 내용과 캐릭터를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각색했으며 독특한 연출과 다양한 캐릭터들의 생동감 있는 춤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올해는 '극단 모시는 사람들' 김진숙 대표가 각색에 참여했으며, 호원대 진남수 교수의 연기 지도를 통해 단원들의 연기력을 보강했다. 2020년 선보였던 쇼케이스와는 달리 아크로바틱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장면까지 만나볼 수 있다. 어드벤처 판타지 발레 피터팬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서울발레시어터가 주관한다. 관람가는 만 5세 이상이며 티켓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 티켓과 서울발레시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유주/기자

